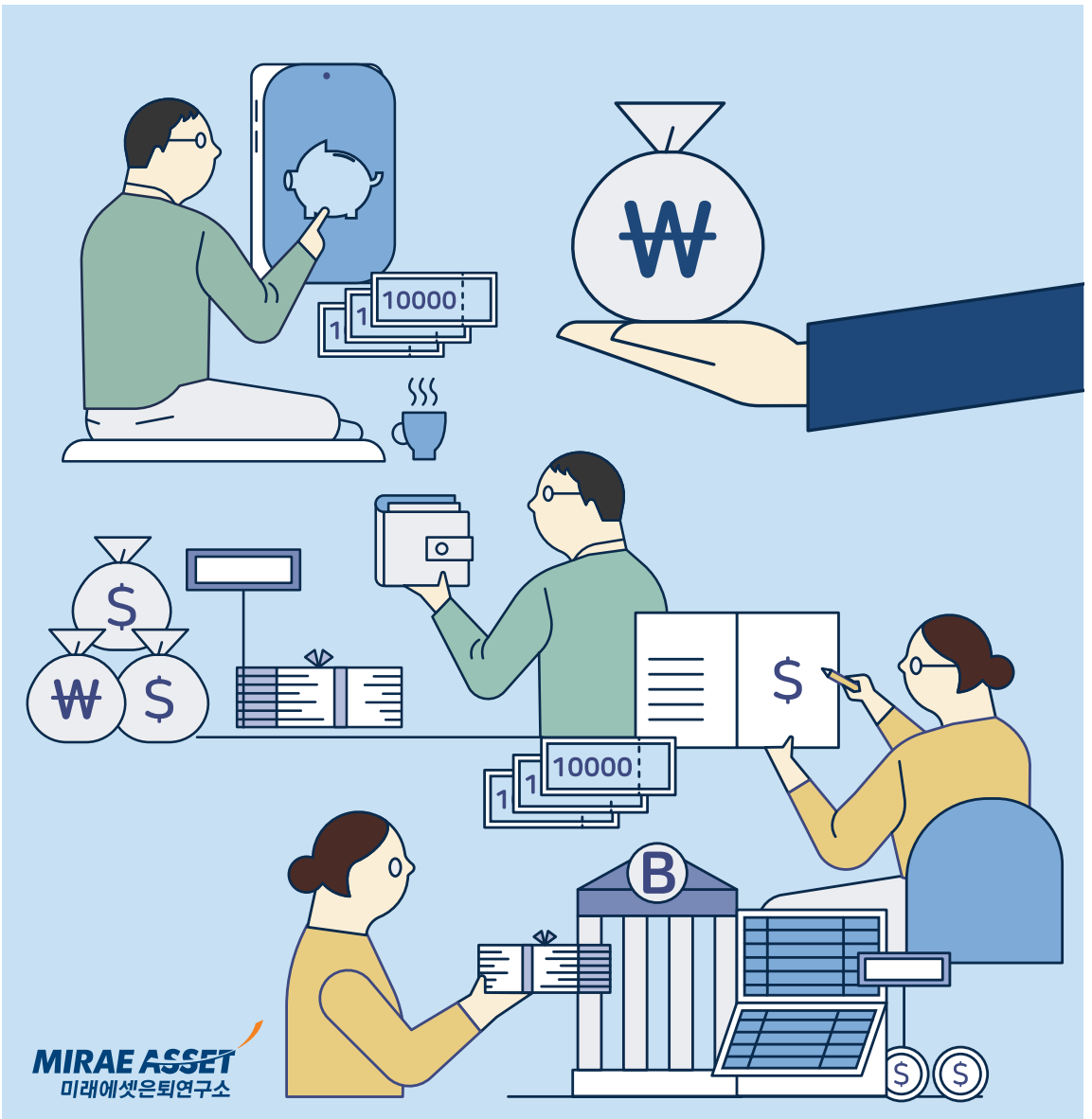


#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심현정 · 정나라

# Contents

〈요약〉 .....	4
I. 서론 .....	14
II. 자산 현황 및 특징 .....	17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	18
2. 자산 보유 현황 .....	24
3. 부채 보유 현황 .....	29
III.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33
1.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	34
2. 은퇴자산 운용 태도 .....	46
IV. 은퇴자산 운용 및 활용 계획 .....	59
1. 연금자산 .....	60
2. 연금 외 금융자산 .....	68
3. 부동산 .....	76
V. 결론 및 시사점 .....	84

발행일 2020.4.22  
발행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 : <http://retirement.miraeasset.com/>  
편집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작·디자인 미래에셋생명 TDC  
인쇄 미래에셋생명 TDC

본 자료의 저작권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용·발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직장인에게 50대란 은퇴 준비의 '골든 타임'이다. 5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기는 은퇴를 앞둔 마지막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애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이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아 잘 짜여진 재무계획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50대의 은퇴자산 운용 현황과 생각, 향후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50대 남녀 직장인 1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3.8세이며, 평균 가계보유자산은 6억 6078만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50대 직장인들의 자산 현황,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은퇴자산 운용계획을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첫 번째 장은 '자산 현황 및 특징'으로, 50대 직장인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금융자산, 부동산 및 기타 실물자산, 부채를 중심으로 자산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였으며 자산규모와 지역에 따라 자산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또한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다시 세부 자산별로 나눠 현황을 살펴봤다. 연금자산, 주택과 같은 개별 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유자산의 금액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다루었다. 50대 직장인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재무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자산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과 태도를 살폈다. 스스로 재무적 은퇴준비점수를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보유한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투자성향, 종신연금에 대한 선호도, 개별 자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세 번째 장은 '은퇴자산 운용 및 활용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응답자들이 보유한 은퇴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 또 이 자산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물었다. 은퇴자산은 크게 연금, 연금 외 금융자산, 부동산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금의 경우 노후에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자 하는지, 어디에 지출할 계획인지 살펴보고, 연금 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미래 재투자 및 인출 계획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노후 이주 계획 및 부동산 투자 계획을 알아보았다.

자산 현황 및 특징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자산 및 부채 규모]

50대 직장인 가계 총자산의 72.1%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총 자산규모는 6억 6078만원인데, 그 중 부동산이 4억 7609만원, 금융자산은 1억 6794만원이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6780만원)과 사적연금(5139만원) 금액이 가장 컸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부부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다. 평균 부채 규모는 6987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9091만원이다.

[분위별 자산 구성 특징]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 가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비중이 유독 낮았다. 총자산 중 주택 비중은 50.7%로, 2~5분위(63.5~68.9%)에 비해 12.8~18.2% 포인트 낮다. 이는 1분위 가계의 주택보유 비율이 56.6%로 타 분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5분위 가계의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11.2%로 타 분위 가계(2.6~6.3%)

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컸다.

**[지역별 자산 구성 특징]**

수도권 가계와 비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를 가른 주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억 7148만원, 비수도권은 4억 9115만원으로, 수도권 가계가 약 2억 8천만원 정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억 1천만원 정도가 주택자산으로 인한 차이이다. 수도권 가계가 보유한 주택자산은 평균 5억 685만원, 비수도권 가계는 2억 9340만원이었다.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 가계에 비해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가구당 보유주택 수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간 자산 차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산 보유 현황**

**[금융자산 보유 현황]**

금융자산을 예적금/저축성보험, 사적연금,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보유 비율과 보유금액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96.3%)의 가계가 예적금/저축성보험을 보유했으며,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보유 비율도 76.0%로 비교적 높았다. 사적연금 보유가계의 23.8%는 1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계 중 절반(50.1%)은 국내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외주식/채권 보유 비율은 9.3%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 보유 현황]**

수도권에서 주택을 보유한 가계 중 10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17.6%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비수도권 가계 중에는 10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계가 3.4%에 그쳤다. 수도권 가계의 주택자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컸다. 수도권

가계의 경우 '5~10억'(34.8%)과 '3~5억'(24.1%) 구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3억'(41.1%) 구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후 '3~5억'(28.6%), '5~10억'(16.8%) 순이었다.

**3. 부채 보유 현황**

**[금융부채 보유 현황]**

가계 중 절반(46.9%)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은 평균 1억 2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은 비금융부채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부채 보유가계 중 38.5%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규모는 평균 1억 7182만원이고, 36.1%는 담보대출만 평균 1억 1882만원, 나머지 25.4%는 신용대출만 평균 4316만원 가지고 있다.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

응답자가 스스로 평가한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는 100 점 만점에 평균 54.4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보유자산규모에 따라 점수가 달라졌는데, 자산 2억 미만 응답자의 경우 스스로의 은퇴준비 점수에 평균 41.9점을 준 반면, 20억 이상은 73.2점을 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산규모 10억원을 기점으로 은퇴준비점수의 증가폭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10억원 미만에서는 자산이 많아질수록 은퇴준비점수도 급격히 높아졌지만 10억원 이상에서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외에 거주형태별로는 자가(55.8점)가 전월세(50.6점) 및 기타(41.3점)에 비해 점수가 높았고,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이 많을수록 은퇴준비점

수 역시 높았다.

**[연금자산에 대한 인식]**

50대 직장인 10명 중 4~5명은 자신이 보유한 연금자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10명 중 6명(61.0%)이 '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 후반(67.1%)이 초반(56.8%)보다, 성별로는 남성(63.1%)이 여성(55.2%)보다 인지율이 높았다.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보유액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10명 중 5명(47.9%)이 '안다'고 답했다. 사적연금의 경우 자산의 종류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보유액 추정이 쉽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와 현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기대 수령액과 기간을 물었더니, 현재 수령 가능한 금액에 비해 4.4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기대 수령액은 월평균 133만원, 기대 수령기간은 20년이었다. 이만큼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억 6904만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현재 보유액은 평균 6104만원에 불과했다. 향후 저축을 감안하더라도 괴리가 큰 편이다. 퇴직연금 보유금액이 적을수록,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를수록 현재 보유한 금액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 은퇴자산 운용 태도**

**[투자성향]**

50대의 투자 성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안전 지향'이다. 개인의 기대수익률과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투자성향을 '안전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

자형-공격형' 5단계로 나누었을 때, 50대 직장인 중 79.2%는 '안정추구형 및 안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명 중 4명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 금융채와 같이 투자원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낮은 자산에만 투자하고자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투자형 및 공격형'은 10.5% 수준이다. 위험중립형은 10.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자산이 적을수록, 금융지식이 부족할수록 안전 지향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종신연금 희망 비율]**

미래의 노후 생활비 중 얼마 가량을 종신연금으로 조달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희망 비율은 평균 62.7% 수준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노후 생활비가 100만원이라면 약 63만원 정도는 종신으로 보장되는 연금(국민연금, 종신연금보험 등)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이들이 원하는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평균 302만원, 1인 기준 월 180만원 정도다. 희망 종신연금 비율은 여성(66.4%)이 남성(61.3%)보다 소폭 높았다. 또한 현재 월 가구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을수록 희망 종신연금 비율이 높았다.

**[자산군별 비중 조절 의향]**

50대 직장인들에게 은퇴 후 보유한 자산군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연금'은 증가 의견(24.5%)이 감소 의견(8.2%)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예적금/저축성보험'은 증가(23.9%)와 감소(21.5%)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주택, 주택 외 부동산'은 감소 의견이 더 많았다. 즉 전반적으로 연금자산을 늘리고, 투자자산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은퇴자산 운용 및 활용 계획

### 1. 연금자산

#### [연금형태 수령 VS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가입자 5명 중 4명은 이를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5명 중 1명은 일시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퇴직연금은 연금형태로 받겠다는 비율이 82.8%이며,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86.5%,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77.8%였다. 연금형태로 수령하려는 이유는 '노후 생활비로 쓰려고'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퇴직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였다.

#### [연금형태 수령시 수령기간 및 수령액]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 기간을 18~2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종류에 따라 월평균 20~4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퇴직시점의 예상 적립자산은 각각 퇴직연금 8383만원, 세제적격 개인연금 4116만원,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3036만원이다. 이들의 수령 예상 금액과 기간은 각각 퇴직연금 월 49만원(20년), 세제적격 개인연금 월 25만원(19년),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월 20만원(18년)으로 추정된다.

#### [일시금 수령시 수령이유 및 활용계획]

퇴직연금 보유자의 17.2%, 개인연금 보유자의 경우 세제적격 13.5%, 세제비적격 22.2%가 일시금 수령을 희망했다. 일시금 수령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으로 받을 경우 월 수령액이 적기 때문'으로, 응답의 36~46.5%를 차지했다. 수령한 일시금을 어디에 쓸지 물었을 때 '재투자'가 '지출'보다 소폭 많았다. 퇴직연금 일시금의 58.2%는 재투자에, 41.8%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연금 일시금은 재투자에 배분하는 비중이 53.2~55.5%, 지

출에 쓰는 비중이 44.5%~46.8%로 나타났다.

### 2. 연금 외 금융자산

#### [예적금/저축성보험 및 국내외 금융투자자산 활용계획]

50대 직장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연금과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연금 외 금융자산은 9649만원이다. 응답자들은 이 중 47.4%를 생활비나 대출상환 등에 쓰고, 나머지 52.6%는 다른 자산(예적금, 국내외 투자, 부동산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외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이를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재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국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비율도 더 높았다.

#### [예적금에 대한 인식 및 운용계획]

예적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금손실 위험이 없어서'(48.4%)이지만, 현재 예적금 금리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초저금리가 현실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을 때 자산을 '주식, 펀드 등에 투자'(31.5%)해보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보겠다는 응답이 29.2%로 뒤를 이었다. 여유자산이 많고 금융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겠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국내외 금융투자에 대한 인식 및 운용계획]

은퇴 후 자산군별 비중조절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국내 및 해외주식/채권의 비중을 낮추고자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내투자의 애로사항은 '원금손실에 대한 걱정'(국내 주식/채권 보유자 중 30.6%)과 '수익률 불만족'(보유자 중 29.4%)이었다. 해외 투자의 경우 '해외 투자자산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렵다'는 응답이 48.2%로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그러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4명 중 1명(26.5%)은 향후에 해외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 해외 투자자산을 보유한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61.5%가 향후에도 해외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순자산 규모가 클수록 해외 투자 의향도 높았다.

### 3. 부동산

#### [은퇴 후 주거계획]

50대 직장인에게 노후 주거계획을 물었을 때 ‘현재 집에 그대로 거주하겠다’(43.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이사하겠다’(20.6%)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단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사계획은 16.4% 였다. 보유한 주택자산 금액이 클수록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이사하겠다는 비중도 높았다. 이는 주택의 자산가치가 클수록 이사 후 노후자산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는 차액이 커져 다운사이징(down-sizing) 효과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주택연금 가입의향]

보유 주택자산이 9억원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살펴본 결과, 54.8%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택가액 분위별 가입의향을 비교해보면 역 U자 형태를 띤다. 평균주택가액이 3억 7750만원인 중위(3분위) 가계의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하와 이상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시기는 ‘다른 노후 자산이 다 떨어졌을 때’(31.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라는 응답이 20.1%, ‘가능한 한 늦게’라는 응답이 16.7%를 차지해, 주택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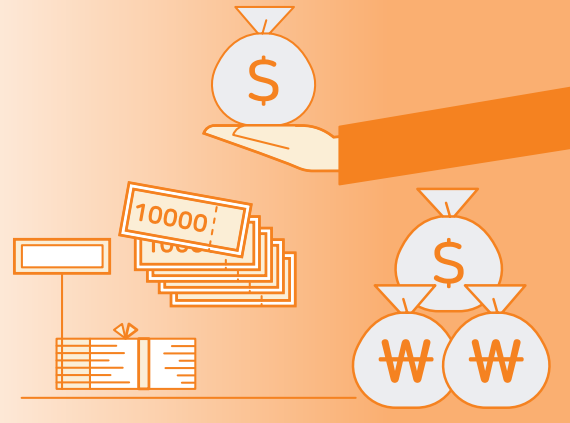
#### [부동산 투자 계획]

50대 직장인 가계의 44.8%는 노후에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을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모두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18.7%, 주택만 매수하겠다는 경우가 11.7%, 주택 외 부동산만 매수하겠다는 경우가 14.3% 였다. 주택 외 부동산 중에서는 오피스텔, 상가와 같이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향이 토지, 임야에 대한 매수 의향보다 높았다.



# I.

## 서론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골든 타임’처럼, 직장인이 인생에서 은퇴를 준비할 때에도 경제적 골든 타임이 있다. 바로 50대의 10년간이다. 50대는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50세를 기준으로 법적 정년인 60세까지 최대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 지난 해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결과 5060퇴직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4.5세였음을 감안하면 퇴직이 더 이르게 찾아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대다수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 가긴 하지만, 이 역시 단계적으로 은퇴에 접어드는 과정에 불과하다. 50대에게 은퇴준비가 현재형이어야 하는 이유다.

재무상황 역시 또 다른 문제이다. 상당수의 50대는 은퇴한 부모 세대와 독립하지 못한 자녀 세대를 이중부양하느라 ‘깁 세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퇴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을 마주하게 되면 가정 경제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퇴직 전에 미리 소득과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늦어도 50대부터는 은퇴에 대비한 재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50대가 은퇴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었다. 50대 가구의 재무적/비재무적 현황을 분석하고 은퇴준비도를 평가하는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은퇴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들이 은퇴자산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재무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현황과 인식, 운용 계획을 분석했다. 설문 대상은 30인 이상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전국의 50대 남녀 직장인이며,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다. 이들이 은퇴자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산별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본 보고서는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50대 직장인의 자산 규모와 구성 현황을 파악했다. 평균적인 자산 구성 뿐 아니라 각 세부자산별로 보유 비율, 보유금액 분포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자산규모와 거주지역별 자산구성의 특징을 파악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50대가 은퇴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다뤘다. 먼저 이들이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한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를 알아보고,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다. 그리고 투자성향, 종신연금 선호도, 개별 자산군 운용에 대한 태도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는 50대 직장인이 은퇴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노후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분석했다. 자산을 크게 ‘연금, 연금 외 금융자산, 부동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의 운용계획을 파악해 보고 애로사항을 알아봤다.

본 보고서는 ‘은퇴 예비군’이라 할 수 있는 50대 직장인의 재무적 현주소와 향후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진단하였다. 이 보고서가 50대 직장인 뿐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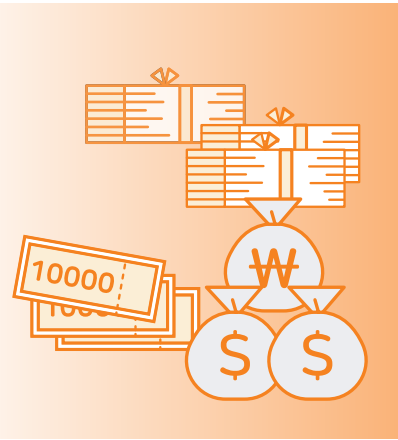
■ 조사 내용

- 50대 직장인 가계의 보유자산 현황
-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향후 은퇴자산 운용 계획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업체	닐슨컴퍼니 코리아
조사 대상	전국 50~59세 남녀 1960명 • 30인 이상 기업 재직 • 전국 시도지역 거주
조사 기간	2019년 12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

## II. 자산 현황 및 특징



50대 직장인 가계의 은퇴자산 운용계획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재무적 상황이 어떤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II장에서는 50대 직장인 가계가 현재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구성 내용을 파악하고, 주택이나 사적연금과 같은 구체적인 자산의 보유 현황도 함께 알아봤다.

먼저 자산 보유 현황에서는 50대 직장인 가계의 자산을 전반적으로 조망했다. 50대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들 자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기업에서 대차대조표를 통해 재무현황을 보여주듯 50대 가구의 평균적인 모습을 금융자산, 실물자산(부동산), 부채로 나누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렸다. 또한 자산규모 및 거주지역에 따라 자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5분위로 나누고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 집단별 자산 규모와 구성을 비교했다.

아울러 사적연금, 국내주식/채권 등 세부 자산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인 보유 실

태를 파악했다. 앞선 분석이 가계의 입장에서 가계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라면, 이 분석은 각 세부 자산의 관점에서 자산별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얼마나 많은 가계가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소액을 보유하고 고액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보유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했으며, 금융자산은 다시 '예적금/저축성보험, 사적연금,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부동산은 '주택,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누어 각 세부 자산별 보유 비율 및 분포를 제시했다.

자산과 함께 부채 보유 현황도 분석했다. 비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 보유자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한 집단, 담보대출만 보유한 집단, 신용대출만 보유한 집단' 3개로 나누어 각각의 부채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산규모에 비해 부채를 과도하게 지고 있는 가계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 1. 자산의 규모와 구성

###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72%) > 예적금/저축성보험(10%) > 사적연금(8%)

50대 직장인 가계의 평균적인 자산 구성은 어떤 모습일까? 조사 결과 평균 총자산은 약 6억 6천만원으로, 이 중 72.1%가 부동산자산이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25.4% 수준이며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저축성보험과 사적연금이 주요 자산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보유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누어 어떤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부채규모도 아울러 살펴봤다.

50대 직장인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평균 1억 6794만원 규모다. 금융자산 내에서 종류별로 나눠보면 예적금/저축성보험 > 사적연금 > 국내 주식/채권 > 해외 주식/채권 순으로 비중이 높다. 임차보증금도 금융자산에 해당하지만, 다른 금융자산과 성

격이 다르므로 비교선상에 두지 않았다. 예적금/저축성보험 보유액은 평균 6780만원이며 총 자산의 1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은 사적연금으로 총 자산 중 7.8%이며, 평균 금액은 5139만원이다. 이 때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말하며 부부 2인의 보유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채권 보유액은 국내 2651만원(총자산의 4.0%), 해외 218만원(총자산의 0.3%)으로 평균 금액이 비교적 적었다.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가구가 보유한 보증금으로 금액은 평균 2006만원이다.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기타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물자산 4억 9284만원 중 부동산이 4억 7609만원이고, 차량이나 회원권과 같은 기타 자산은 1675만원이다. 부동산은 다시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은 평균 4억 2256만원, 주택 외 부동산은 평균 5353만원이다.

가계가 보유한 부채 규모는 평균 6987만원으로, 금융부채 5632만원과 임대보증금 135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부채 중에서는 담보대출(4320만원)이 신용대출(1312만원)에 비해 3배 이상 금액이 크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평균 5억 9091만원이다.

〈도표 II-1〉 50대 가계의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구분	금액(만원)	비율(%)	구분	금액(만원)	비율(%)
총자산	66,078	100.0	부채	6,987	100.0
금융자산	16,794	25.4	금융부채	5,632	80.6
예적금/저축성보험	6,780	10.3	담보대출	4,320	61.8
사적연금	5,139	7.8	신용대출	1,312	18.8
국내 주식/채권	2,651	4.0	임대보증금	1,355	19.4
해외 주식/채권	218	0.3	순자산	59,091	-
임차보증금	2,006	3.0			
실물자산	49,284	74.6			
부동산	47,609	72.1			
주택	42,256	63.9			
주택 외 부동산	5,353	8.1			
기타 (차량, 회원권 등)	1,675	2.5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n=1960)

총자산 1분위 가계는 주택 비중 낮고, 5분위는 주택 외 부동산 비중 높아

응답자들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1~5분위로 나누어 자산규모 및 구성을 살펴봤다. 순서대로 1분위는 자산 기준 하위 20%, 2분위는 20~40%, 3분위는 40~60%, 4분위는 60~80%, 5분위는 80~100%(상위 20%)를 의미한다. 분위별 평균 자산은 1분위 (1억 2227만원) < 2분위 (3억 2197만원) < 3분위 (5억 1084만원) < 4분위 (7억 7822만원) < 5분위 (15억 7501만원) 순이다. 1~4분위는 구간별 평균 금액의 차이가 2~3억 내 외지만, 5분위의 경우 평균 자산이 4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도표 II-2〉 자산규모 분위별 보유자산 평균 및 경계값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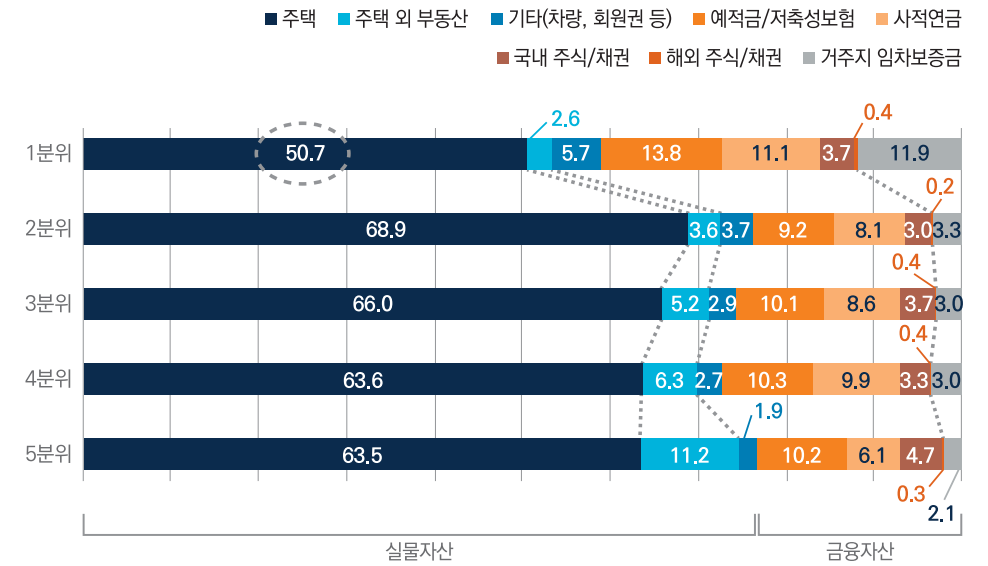
총자산 분위	총자산		
	최소값	평균	최대값
1분위	50	12,227	23,000
2분위	23,009	32,197	40,900
3분위	40,960	51,084	63,000
4분위	63,075	77,822	96,000
5분위	96,050	157,501	352,000
전체	50	66,078	352,000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n=1960)

자산 규모에 따른 자산구성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분위 가계의 주택자산 비중이다.〈도표II-3〉 참조) 1분위 가계의 주택자산 비중은 50.7%로, 2~5분위(63.5~68.9%)에 비해 유독 낮았다. 이는 1분위 가계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비교적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1분위 가계의 경우 ‘거주지 임차보증금’의 비중이 1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비교적 많다는 의미다.

또 다른 특징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산 중에서 주택 외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점이다. 1분위의 경우 자산 중 주택 외 부동산의 비중이 2.6%에 그쳤으나, 이후 2분위 3.6% < 3분위 5.2% < 4분위 6.3% 순으로 높아졌다. 5분위는 이 비중이 11.2%로, 1~4분위에 비해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다.

〈도표 II-3〉 자산규모 분위별 자산 구성비 (%)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n=1960)

〈도표 II-4〉 자산규모 분위별 평균 보유자산 현황 (만원)

총자산 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b>총자산</b>	<b>66,078</b>	<b>12,227</b>	<b>32,197</b>	<b>51,084</b>	<b>77,822</b>	<b>157,501</b>
<b>금융자산</b>	<b>16,794</b>	<b>5,017</b>	<b>7,668</b>	<b>13,196</b>	<b>21,266</b>	<b>36,916</b>
사적연금	5,139	1,361	2,607	4,387	7,703	9,663
예적금/저축성 보험	6,780	1,691	2,975	5,157	8,028	16,091
국내 주식/채권	2,651	451	968	1,886	2,557	7,412
해외 주식/채권	218	55	57	216	299	465
임차보증금	2,006	1,459	1,061	1,550	2,679	3,285
<b>실물자산</b>	<b>49,284</b>	<b>7,210</b>	<b>24,529</b>	<b>37,888</b>	<b>56,556</b>	<b>120,585</b>
주택	42,256	6,194	22,180	33,732	49,519	99,946
주택 외 부동산	5,353	323	1,173	2,671	4,939	17,707
기타 (차량, 회원권 등)	1,675	693	1,176	1,485	2,098	2,932
<b>부채</b>	<b>6,987</b>	<b>2,082</b>	<b>5,377</b>	<b>6,407</b>	<b>7,221</b>	<b>13,881</b>
<b>순자산</b>	<b>59,091</b>	<b>10,145</b>	<b>26,820</b>	<b>44,677</b>	<b>70,601</b>	<b>143,620</b>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n=1960)

### 주택가격으로 갈린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산규모

가계자산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수도권 가계의 자산 규모는 비수도권 가계보다 평균 1.6배 큰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자산 규모는 7억 7148만원으로 비수도권(4억 9115만원)에 비해 2억 8천만원 가량 높았다. 이 중 주택으로 인한 차이를 계산해보면 수도권의 평균 주택자산 규모는 5억 685만원, 비수도권 2억 9340만원으로 약 2억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즉, 2억 8천만원의 차이 중 주택으로 인한 2억 1천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자산의 차이는 7천만원 정도다. 수도권 가계의 부채(8326만원)가 비수도권 가계(4932만원)보다 3천4백만원 정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차이는 3천 6백만원 정도로 작아진다.

단, 위의 분석에서 주택자산은 단일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주택자산의 차이가 주택가격 외에도 보유주택 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수도권의 평균 보유주택 수는 1.20, 비수도권은 1.2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평균 주택자산이 적은 편인 비수도권 가계의 보유주택 수가 더 많은 편이었다. 주택보유 가계 중 다주택 보유 가계의 비율을 따져봐도 수도권 18.5%, 비수도권 20.6%로 비수도권이 더 높다. 즉,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 가계보다 더 많은 주택자산을 보유한 데에는 보유주택 수로 인한 영향은 적고, 주택가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1주택 가계만 따로 떼어 자산 규모와 주택가격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도 전체 가계를 분석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주택 가계의 경우 주택자산 금액이 곧 보유주택의 가격이다. 수도권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7억 5093만원, 비수도권은 4억 5850만원으로 2억 9천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 2억 5천6백만원은 주택가격의 차이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각각 수도권 5억 3838만원, 비수도권 2억 8221만원이다. 주택으로 인한 차이를 제외하면 수도권 가계가 비수도권에 비해 3천 4백만원 정도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수도권 가계는 보유부채가

7278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계(4063만원)보다 3천만원 정도 많으므로,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의 차이는 4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1주택가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규모 차이는 거의 주택가격의 차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지역 가계의 총자산은 9억 715만원으로 인천/경기(6억 5960만원)에 비해 2억 5천만원 이상 높았다. 이들의 평균 주택자산 규모는 각각 6억 1264만원, 4억 1962만원으로 2억 정도 차이가 난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지역의 자산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주택의 가격인 셈이다. 실제 주택가격 통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6억 8836만원, 경기 3억 3932만원, 인천 2억 4268만원, 지방권 1억 9678만원으로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다.

수도권 가계는 비수도권 가계에 비해 주택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총자산 중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자산 중 주택의 비중은 수도권 가계가 65.7%로 비수도권 가계(59.7%)에 비해 6.0%포인트 높다.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서울 지역(67.5%)은 인천/경기(63.6%)에 비해 주택 비중이 더 높았다.

〈도표 II-5〉 지역별 자산 구성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인천/경기			
	금액 (만원)	비율 (%)	금액 (만원)	비율 (%)	금액 (만원)	비율 (%)	금액 (만원)	비율 (%)
총자산	77,148	100.0	90,715	100.0	65,960	100.0	49,115	100.0
실물 자산	58,536	75.9	70,268	77.5	48,862	74.1	35,108	71.5
주택	50,685	65.7	61,264	67.5	41,962	63.6	29,340	59.7
금융 자산	18,612	24.1	20,448	22.5	17,099	25.9	14,007	28.5
부채	8,326		8,175	-	8,451	-	4,932	-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서울 n=468, 인천/경기 n=565, 지방 n=686)

## 2. 자산 보유 현황

개인의 자산보유액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 통계의 경우 대체로 하한값은 0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상한값은 상당히 크고, 우측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인다. 특히 자산보유액 같은 경우 평균값을 구하면 일부 고액 자산가의 값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쉽다. 따라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자산보유액의 구간별 분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투자자산처럼 일부만이 보유한 자산, 즉 보유 비율이 낮은 자산의 경우 다수의 미보유자에 의해 평균값이 희석되면서 평균 보유액이 낮아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막으려면 각 자산의 보유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크게 '금융 자산, 실물자산, 부채'로 나누어 각각 세부 자산별로 보유 비율을 살펴보고,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보유금액 평균과 중위값, 분포를 함께 제시했다.

### 가계 중 76%가 사적연금 보유, 이 중 1/4은 보유금액 1억 이상

가계가 보유한 4가지 금융자산(예적금/저축성보험, 사적연금,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에 대해 각각의 보유 비율과 보유금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종류별 보유 비율은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 > 사적연금 > 국내 투자자산 > 해외 투자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은 대부분(96.3%)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보유가계의 평균 보유금액은 7042만원이고 중위값은 3000만원이다. 중위값에 비해 평균금액이 두 배 이상 높은 이유는 고액의 예적금/저축성보험을 보유한 일부 가계가 평균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즉 중위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액을 보유한 가계가 많고, 보유금액도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표II-7>에서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 보유가계의 보유금액 분포를 보면 보유가계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비교적 소액인 '3천만원 미만'을 보유했지만, '1억 이상'을 보유한 가계도 22.6%에 달한다.

사적연금 보유 비율은 76%로, 예적금/저축성보험 다음으로 높았다. 또 비교적 고액을 보유한 가구가 많아, '1억 이상' 보유가계 비율이 23.8%로 가장 컸다. 이 때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부부 합계액을 말한다. 이들의 평균 보유금액은 6764만원으로 예적금/저축성보험보다 약간 적었지만, 중위값은 4500만원으로 오히려 예적금/저축성보험보다 높았다. 사적연금의 중위값이 예적금/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이유는 '3천만원~1억' 사이의 중간 계층이 예금에 비해 두텁기 때문이다. 예적금의 경우 비교적 소액인 '1~3천만원' 보유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28.4%) 사적연금의 경우 이 구간의 비중이 12.0%로 낮은 대신 '3천만원~1억' 구간의 비중이 39.2%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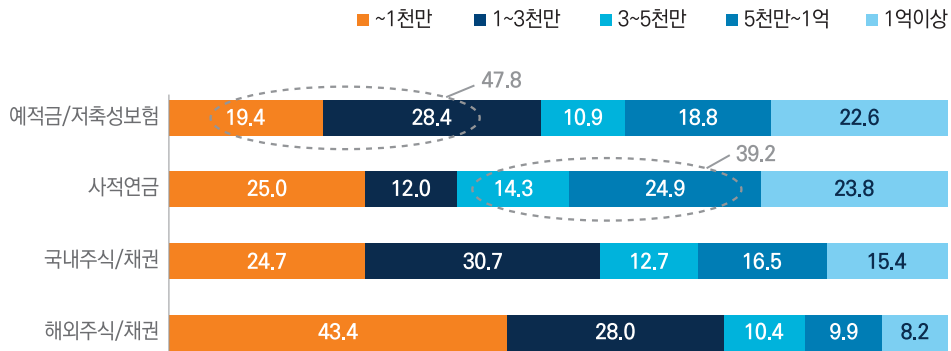
국내외 투자자산의 경우 보유가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주식/채권 보유 비율은 50.1%로, 보유가계의 평균 보유액은 5291만원이다. 보유금액 중위값은 2000만원이다. 절반이 넘는 55.4%가 '3천만원 미만' 이고, 1억 이상은 15.4% 수준이다. 해외주식/채권 보유 비율은 9.3%로 가장 낮다. 보유가계의 평균 보유금액은 2351만원, 중위값은 1000만원이다. 금융자산 중 가장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보유가계 중 71.4%가 '3천만원 미만'이고, '1억 이상'은 8.2%에 그쳤다.

<도표 II-6> 금융자산 종류별 평균 보유금액 및 중위값

구분	보유 비율(%)	해당 자산 보유가계	
		평균 보유금액(만원)	중위값(만원)
예적금/저축성보험	96.3	7,042	3,000
사적연금	76.0	6,764	4,500
국내주식/채권	50.1	5,291	2,000
해외주식/채권	9.3	2,351	1,000

대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계(예적금/저축성보험 n=1887, 사적연금 n=1489, 국내주식/채권 n=982, 해외주식/채권 n=182)  
\* 자산을 복수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각 비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있음.

〈도표 II-7〉 금융자산 종류별 보유금액 분포 (%)



대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계(예적금/저축성보험 n=1887, 사적연금 n=1489, 국내주식/채권 n=982, 해외주식/채권 n=182)

주택자산 10억 이상 보유 비율, 수도권 18% vs. 비수도권 3%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7.7%가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25.2%는 건물,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보유금액은 주택자산이 4억 8180만원, 주택 외 부동산이 2억 1282만원이다. 주택 외 부동산을 다시 4가지로 나눠 각각의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토지/임야(13.9%) > 건물/상가(6.5%) > 오피스텔(4.7%) > 기타(0.7%) 순이었다. 참고로 한 가구가 여러 종류의 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비율의 합계는 25.2%보다 조금 크다. 평균 금액은 건물/상가가 3억 74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이 2억 307만원, 토지/임야가 1억 444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오피스텔, 기타의 경우 표본수가 100가구 이내로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자산의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3억'(28.6%), '3~5억'(25.9%), '5~10억'(27.6%) 구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10억 이상'도 11.9%로 적지 않았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 및 주택의 종류 등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말하는 주택자산은 단일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

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합산한 값이므로 해석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주택 외 부동산은 '1억 미만'(37.1%)과 '1~3억'(37.3%) 구간에 74.4% 가량이 집중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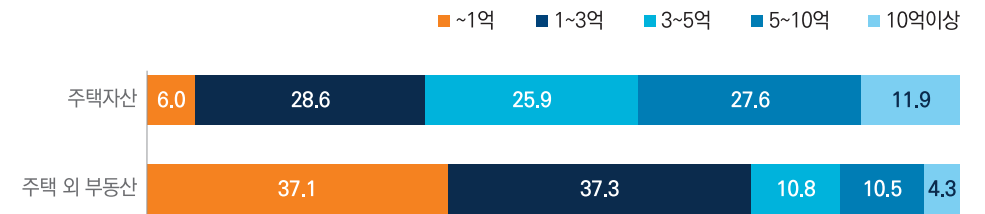
〈도표 II-8〉 부동산 보유가계의 평균 보유금액 및 중위값

구분	보유 비율(%)	해당 자산 보유가계		
		평균 보유금액(만원)	중위값(만원)	
부동산	주택자산	87.7	48,180	36,000
	주택 외 부동산	25.2	21,282	10,000
	토지/임야	13.9	14,442	10,000
	건물/상가	6.5	37,404	30,000
	오피스텔	4.7	20,307	16,000
	기타	0.7	26,269	20,000

대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계(주택자산 n=1,719, 주택 외 부동산 n=493)

\* 자산을 복수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각 비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있음.

〈도표 II-9〉 부동산 종류별 보유금액 분포 (%)



대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계(주택자산 n=1719, 주택 외 부동산 n=493)

주택자산의 경우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특성 차이가 컸다. 주택자산을 보유한 가구만 따져봤을 때, 평균 보유금액은 수도권이 5억 8192만원, 비수도권이 3억 3104만원이다. 수도권의 주택보유 가계는 비수도권보다 대략 2억 5천만원 정도 많은 자금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도권 가계 중 고액 주택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는 '10억 이상' 고액 보유가계가 17.6%인 반면 비수도권은 이 비율이 3.4%에 그쳤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거나 10억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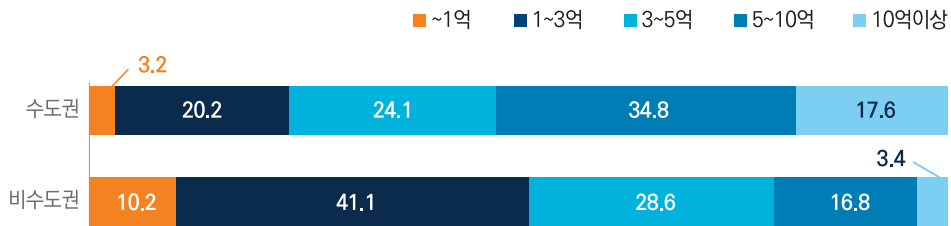
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수도권에 훨씬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이 각각 18.5%, 20.6%로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가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고가주택 보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수도권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금액구간은 '5~10억' (34.8%) 구간이며, 이후 '3~5억'(24.1%), '1~3억'(20.2%) 순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3억'(41.1%)이 가장 많았고, '3~5억'(28.6%), '5~10억'(16.8%)이 뒤를 이었다.

〈도표 II-10〉 지역별 주택 보유 비율 및 평균 금액

구분	보유 비율(%)	주택자산 보유가계	
		평균 보유금액(만원)	중위값(만원)
수도권	87.1	58,192	50,000
비수도권	88.6	33,104	27,000

대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계(수도권 n=1033, 비수도권 n=686)

〈도표 II-11〉 지역별 주택자산 보유금액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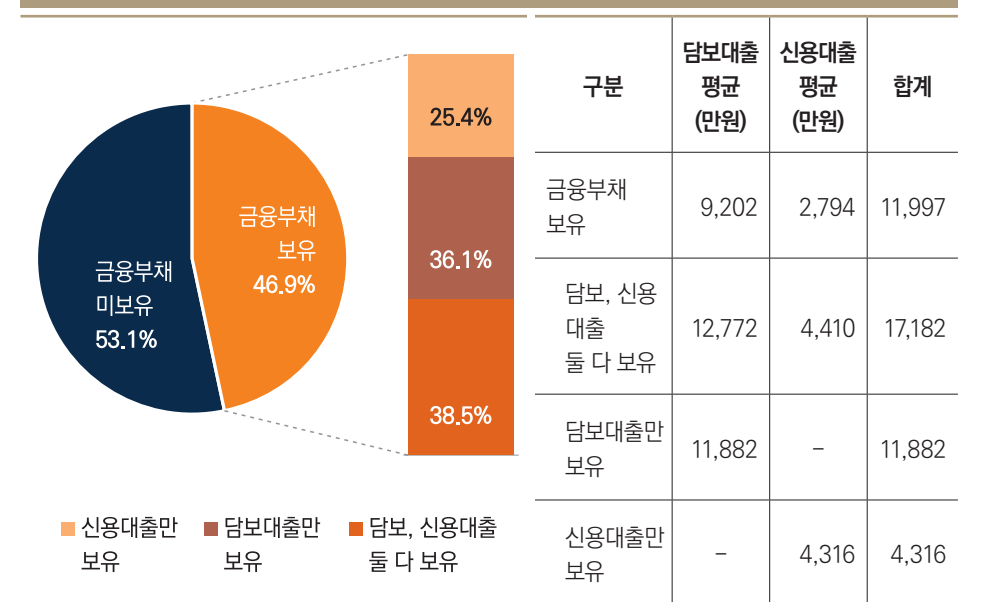
대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가계(수도권 n=1033, 비수도권 n=686)

### 3. 부채 보유 현황

#### 47%가 금융부채 보유, 평균 금액 1억2천만원

전체 가계 중 46.9%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비금융부채인 임대보증금은 제외하고, 금융부채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따졌다. 금융부채 보유가계 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둘 다 보유한 가계는 38.5%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담보대출 1억 2772만원, 신용대출 4410만원으로 둘을 합하면 1억 7182만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담보대출만 보유한 가계는 36.1%로, 평균 대출금액은 1억 1882만원이다. 반면 신용대출만 보유한 가계는 25.4%로 평균 대출금액은 4316만원이다.

〈도표 II-12〉 금융부채 보유유형 및 평균 부채금액



대상: 금융부채 보유가계 (n=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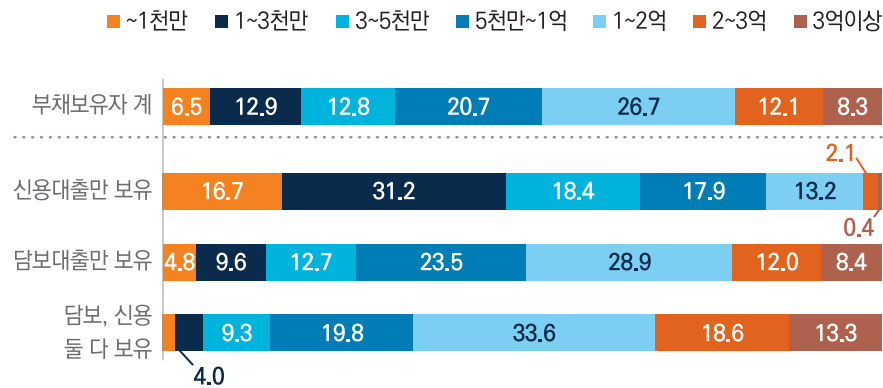
금융부채 보유가계의 전체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보유자 중 절반(47.1%) 정도가 '1억 이상'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비율로 보면 '1~2억'(26.7%) > '2~3억'(12.1%) > '3억 이상'(8.3%) 순으로 많았다. 1억 미만은 '5천만~1억'(20.7%) > '1~3천만'(12.9%) > '3~5'



천만'(12.8%) > '~1천만'(6.5%)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보유자를 대출 종류별 보유 여부에 따라 '신용대출만 보유한 경우', '담보대출만 보유한 경우', '둘 다 보유한 경우' 3가지로 나누어 보유금액의 분포를 살펴봤다. 먼저 신용대출만 보유한 경우 대출금액은 가장 적은 편이다. 절반 정도인 47.9%가 '3천만원 미만'이고, 이후 '3~5천만'(18.4%) > '5천만~1억'(17.9%) > '1~2억'(13.2%) 순이다. 반면 담보대출만 보유한 경우 금액이 비교적 크다. '1~2억'(28.9%)이 가장 많았고, 이후 '5천만원~1억'(23.5%) > '3~5천만'(12.7%) 순으로 많았다. '2~3억'과 '3억 이상' 구간도 각각 12.0%, 8.4%로 높은 편이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한 가계는 부채규모가 가장 크다. 이들의 보유금액은 '1~2억'이 33.6%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19.8%) > '2~3억'(18.6%) > '3억 이상'(13.3%)이 뒤를 이었다.

〈도표 II-13〉 금융부채 보유유형별 금액 분포 (%)



대상: 금융부채 보유가계 (n=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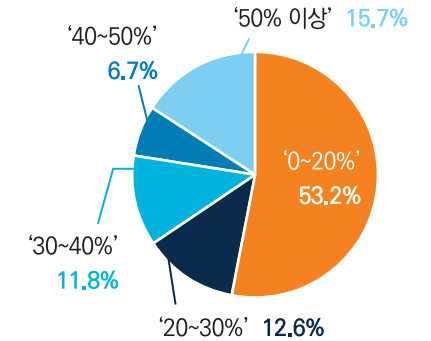
금융부채 보유자가 자산에 비해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금융부채 비율을 살펴봤다. 금융부채 보유자의 평균 총자산 6억 4015만원 대비 평균 금융부채(1억 1996만원) 비율은 평균 18.7%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여기에 더해 금융부채가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가구는 없는지 '0~20%, 20~30%, 30~40%, 40~50%, 50% 이상'의 5개 구간으로 나눠 자세히 살펴봤다. 금융부채 비율이 '0~20%' 사이로 비교적 자산 구성이 건전한 가구가 5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시에 부채가 총자산의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가구도 15.7%나 됐다. 이들 가계는 금리 인상이나 자산가격 하락 등의 위험 요인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금융부채 비율 구간별로 '20~30%' (12.6%) > '30~40%' (11.8%) > '40~50%' (6.7%) 순으로 나타났다.

〈도표 II-14〉 금융부채 보유가계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자산 및 부채 (금융부채 보유자)	
총자산 (만원)	64,015
실물자산 (만원)	50,683
금융자산 (만원)	13,332
금융부채 (만원)	11,996
평균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	18.7%

〈도표 II-15〉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분포 (%)



대상: 금융부채 보유가계 (n=920)

### 자산 분위별 자산 보유 비율

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 보유 비율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1분위 가계의 경우 2~5분위 가계보다 주택 보유 비율이 크게 낮았다. 둘째, 자산규모가 클수록 투자자산 보유 비율이 높아졌다.

먼저 1분위 가계는 주택보유 비율이 낮고, 대신 임차보증금 보유 비율이 높았다. 1분위의 주택보유 비율은 56.6%로 전체 평균(87.7%)보다 31.1%포인트 낮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총자산 규모가 1억 2227만원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의 보유 비율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신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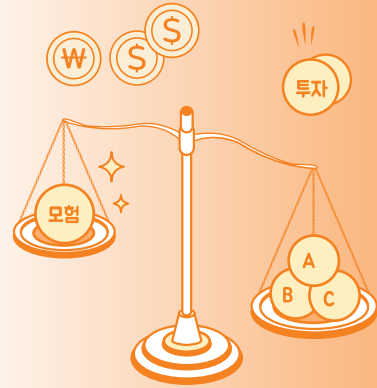
구의 비율이 높다. 임차보증금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29.2%이다. 자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적연금이나 예적금/저축성보험 등 다른 자산의 보유 비율도 전체 분위 중 가장 낮다.

한편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즉 가계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산 보유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1분위 가계의 경우 국내 주식/채권 보유 비율은 33.8%에 그쳤으나, 분위가 높아질수록 보유 비율도 높아져 5분위 가계의 경우 두 배에 가까운 61.9%가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고 있었다. 해외 주식/채권 역시 1분위 보유 비율은 3.8%였으나 5분위 보유 비율은 13.6%로 3배 이상 높았다. 주택 외 부동산의 보유 비율도 마찬가지로 1분위 가계(8.4%)에 비해 5분위 가계(44.5%)가 5배 이상 높았다.

〈도표〉 분위별 자산 보유 비율 (%)

총자산 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b>금융자산(임차보증금포함)</b>						
사적연금	76.0	64.2	69.0	74.9	85.9	85.9
예적금/저축성 보험	96.3	93.1	95.1	97.0	96.7	99.5
국내 주식/채권	50.1	33.8	41.0	53.3	60.6	61.9
해외 주식/채권	9.3	3.8	6.2	11.2	11.8	13.6
거주지 임차보증금	15.5	29.2	10.8	13.7	11.3	12.3
<b>실물자산</b>						
주택	87.7	56.6	93.8	94.7	95.4	98.2
주택 외 부동산	25.2	8.4	17.2	25.6	30.2	44.5
기타 (차량, 회원권 등)	71.6	53.3	71.5	74.6	79.0	79.8

# III.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III장에서는 50대 직장인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재무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노후 자산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이들이 은퇴준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은퇴자산을 운용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50대 직장인이 은퇴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스스로의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를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를 통해 은퇴준비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동시에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객관적인 준비 상태가 이러한 주관적 인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뒤이어 대표적인 은퇴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조사했다. 자신의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고 있는지,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나눠 받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응답자들의 자산규모, 소득 등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투자성향, 종신연금에 대한 선호도, 개별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위험선호수준에 따라 투자성향을 5단계로 구분하여 50대 직장인들이 어떤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원하는 자산운용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종신토록 보장되는 자산의 필요성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후 생활비 중 몇 퍼센트를 종신연금으로 충당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소득, 자산규모,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금, 예금 등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 후 해당 자산의 비중을 조절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분석 결과 자산군의 위험 특성 및 가계 소득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었다.

## 1.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

### 스스로 평가한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 5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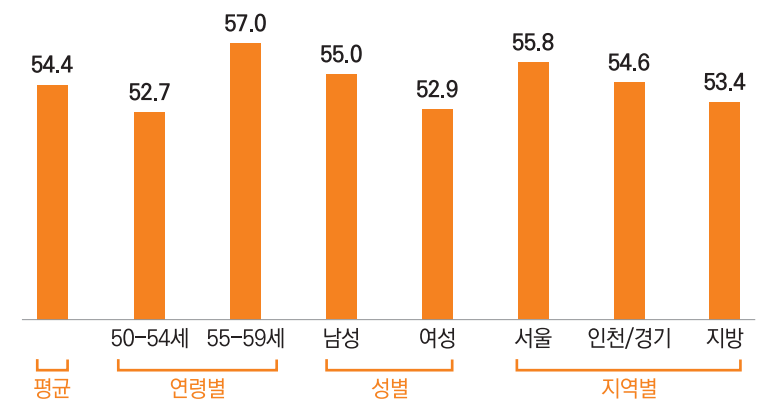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50대는 은퇴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50대 직장인이 스스로 평가한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4.4점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매긴 점수인 만큼, 실제 보유자산이나 소득처럼 객관적인 노후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값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바로 50대 직장인 상당수가 은퇴준비에 '자신이 없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연령, 성별, 지역별로 집단을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은퇴준비 점수는 52~57점으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50대 초반(52.7점)에 비해 후반(57.0점)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특성상, 50대 후반

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응답자는 50대 초반 응답자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55.0점)이 여성(52.9점)보다 점수가 소폭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55.8점) > 인천/경기(54.6점) > 지방(53.4점)'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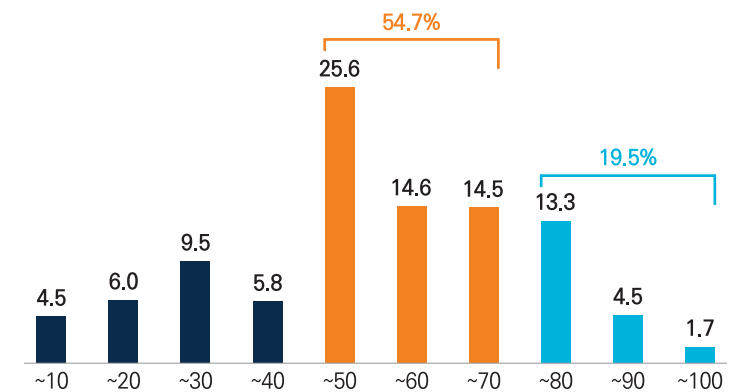
은퇴준비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40~50점 사이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표III-2> 참조) 이후 비중은 50~60점(14.6%) > 60~70점(14.5%) > 70~80점(13.3%) > 20~30점(9.5%) 순이었다. 41~70점 사이에 전체 응답자의 54.7%가 몰려 있었다. 한편 비교적 높은 점수인 71점 이상을 준 집단도 19.5%를 차지한다.

<도표 III-1> 50대 직장인의 은퇴준비 점수 (점)



대상: 50대 직장인(n=1960)

<도표 III-2> 50대 직장인의 은퇴준비 점수 분포 (%)



대상: 50대 직장인(n=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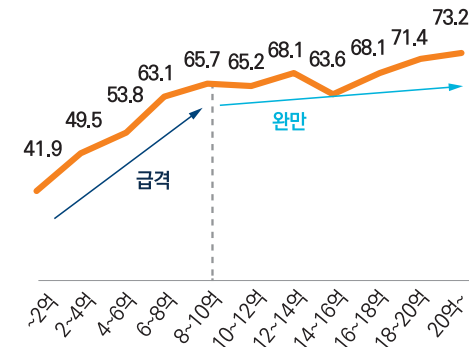
순자산, 소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많을수록 은퇴준비 점수 높아

이후 분석에서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별 은퇴준비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순자산 규모에 따라 은퇴준비점수를 분석했을 때 순자산 '2억 미만' 집단은 자신의 은퇴준비점수에 평균 41.9점을 주었다.(<도표III-3> 참조) 이후 '2~4억'은 49.5점, '4~6억'은 53.8점 순으로 점수가 점점 높아졌다. 구간을 2억 단위로 나누었을 때 구간별로 적게는 2점, 많게는 10점 가량 점수가 높아졌다. 최고 구간인 '20억 이상'은 자신의 은퇴준비도에 73.2점을 주었다. 또한 가계 월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은퇴준비 점수는 39.9점에 그쳤으나 소득규모가 늘어날수록 49.8점(400~600만원) < 57.5점(600~800만원) < 63.3점(80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교적 은퇴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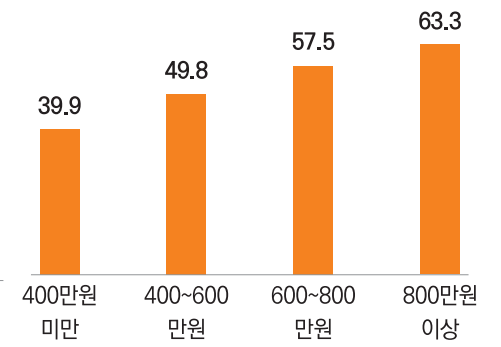
특히 자산규모가 낮을 때는 자산이 많을수록 점수도 급격하게 높아지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점수가 완만하게 높아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초반에는 자산 구간이 2억씩 늘어날 때마다 41.9점(2억 미만) < 49.5점(2~4억) < 53.8점(4~6억) < 63.1점(6~8억)으로 한 구간당 각각 7.7점, 4.3점, 9.3점씩 상승했지만,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인 구간에서는 오히려 65.7점(8~10억)에서 65.2점(10~12억)으로 약간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16~18억 구간까지 63~68점 사이에서 완만하게 증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고 구간인 18~20억, 20억 이상의 경우 은퇴준비 점수는 각각 71.4점, 73.2점을 기록하여 은퇴준비 점수가 한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이전 구간과 비교해보았을 때 보유 자산 대비 점수차가 크지는 않다. 즉 순자산 규모 10억 언저리에서 은퇴준비 점수가 한 단계 상승하면서 증가폭은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20억 언저리에서 은퇴준비 점수가 한 단계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해야 은퇴 준비가 잘 되었다고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10억 및 20억이라는 금액이 일종의 목표치나 기준점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III-3> 순자산 규모별 은퇴준비 점수



<도표 III-4> 가계 월소득 규모별 은퇴준비 점수



대상: 50대 직장인(n=1960)

응답자의 거주형태 역시 은퇴준비 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은퇴준비 점수는 자가 55.8점 > 전세 50.6점 > 기타 41.3점 순으로 높았다. 주거안정성이 삶의 질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가주택을 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자가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은퇴준비 점수가 달랐다.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은퇴준비 점수는 51.5점으로, 대출이 없는 경우(58.5점)보다 7점 낮았다. 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총 부채는 평균 1억 6548만원으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III-5> 거주형태에 따른 은퇴준비 점수 및 자산 현황

거주형태	응답자 (명)	재무적 은퇴준비점수(점)	총자산 (만원)	부채 (만원)	순자산 (만원)
자가	1,623	55.8	71,234	7,383	63,851
담보대출 미보유	1,004	58.5	73,565	1,733	71,832
담보대출 보유	619	51.5	67,454	16,548	50,907
전월세	238	50.6	47,779	5,880	41,898
기타	99	41.3	25,536	3,129	22,407
전체	1,960	54.4	66,078	6,986	59,092

대상: 50대 직장인(n=1960)

한편 국민연금(공적연금)이 충분히 준비된 응답자들은 자신의 은퇴준비 점수를 높게 평가했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중신토록 보장되고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연계연금'이 있다. 본 설문에서는 공무원, 군인 등을 제외한 사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아래 내용은 공적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는 49.2점에 그쳤다. 그러나 예상 수령액이 높아질수록 은퇴준비 점수 역시 60~100만원 53.2점 < 100~140만원 54.2점 < 140~180만원 58.9점 < 180만원 이상 67.1점 순으로 높아졌다. 참고로 본 분석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자에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인지 여부를 물어본 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구간별로 응답자 수를 살펴보면 '180만원 이상'을 예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높은 금액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아닌 미래 수령 시점의 가치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자산규모가 유사할 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점수가 높았다는 점이다. <도표 III-6> 을 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가계 자산은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은퇴준비 점수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비례하는 현상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 140~180만원 예상 집단과 180만원 이상 예상 집단의 경우 총자산은 각각 8억 5089만원, 8억 5360만원으로 유사하다. 이 두 집단은 현재 가진 자산은 비슷하지만 연금 예상액은 서로 다르다. 이 때 이들의 재무적 은퇴준비점수는 각각 연금 예상액 '140~180만원'이 58.9점, '180만원 이상'이 67.1점으로 8.2점의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유자산이 비슷한 경우에도 예상 연금액이 높은 집단이 은퇴준비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도표 III-6>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에 따른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응답자 (명)	재무적 은퇴준비점수(점)	총자산 (만원)	부채 (만원)	순자산 (만원)
60만원미만	141	49.2	44,232	4,488	39,744
60~100만원	120	53.2	55,009	6,610	48,399
100~140만원	263	54.2	67,211	7,734	59,477
140~180만원	291	58.9	85,089	7,989	77,100
180만원이상	380	67.1	85,360	8,768	76,593
전체	1,195	58.8	73,399	7,629	65,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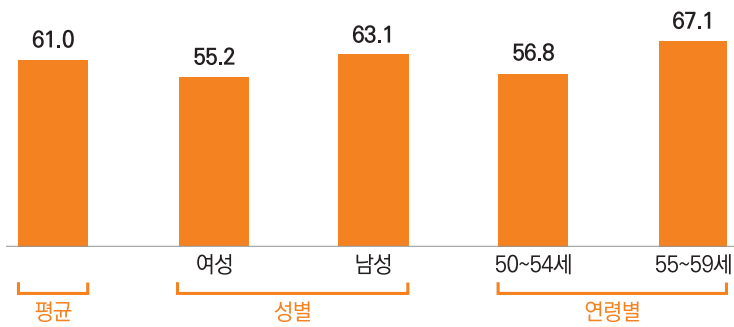
대상: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n=1,195)

### 10명 중 4명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몰라

50대 직장인들 중 절반은 자신이 보유한 연금자산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자신이 보유한 연금의 예상 수령액 및 보유액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10명 중 5~6명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61.0%), 사적연금 보유액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47.9%)이 알고 있었다.

연령을 나누어 보았을 때, 50대 초반에 비해 50대 후반 직장인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50대 초반(56.8%)보다 후반(67.1%)의 인지율이 10.3%포인트 높았다. 50대 초반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10년 이상 남은 반면, 50대 후반은 은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50대 후반이 노후자산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성(63.1%)이 여성(55.2%)에 비해 인지율이 7.9%포인트 높았다.

〈도표 III-7〉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인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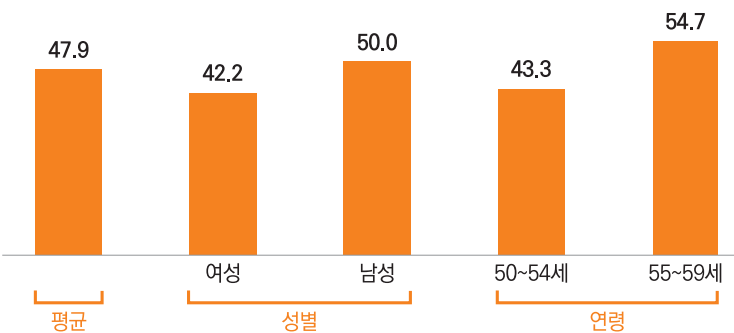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n=1960)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국민연금에 못 미쳤다. 자신의 사적연금 보유액을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평균 47.9%로, 국민연금(61.0%) 수령액을 알고 있는 비율에 비해 13.1%포인트 낮았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상품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금액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연금 중 DB형(확정급여형)은 정확한 퇴직급여 금액이 퇴직 시점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 보유금액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사적연금 인지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국민연금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남성(50.0%)이 여성(42.2%)보다, 50대 후반(54.7%)이 초반(43.3%)보다 사적 연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도표 III-8〉 사적연금 보유액 인지 비율



대상: 50대 직장인(n=1960)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응답자 본인의 월소득에 따라 나눠 살펴보면, 현재 월 소득이 높을수록 예상수령액도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가 소득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본인의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예상액은 77만원이었고, 이후 300~500만원 124만원, 500~700만원 146만원, 700만원 이상 164만원 순으로 높아졌다.

〈도표 III-9〉 월소득 구간별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 (만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현재 월 소득 (본인)				평균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500~700만원	700만원 이상	
	77	124	146	164	135

대상: 50대 직장인(n=1960)

### 퇴직연금, 기대만큼 받으려면 퇴직시점까지 2억 800만원 더 저축해야

50대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의 기대 수령액과 기간을 물었다. 분석 대상은 본인 기준 퇴직연금 천만원 이상 보유자 및 연금 형태 수령 희망자로 한정해, 현재 보유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 대비 기대 수령액을 계산했다. 분석 대상을 천만원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소액 보유자의 경우 5년 이상 연금 수령시 실질 수령 금액이 10~20만원 수준으로 낮아 분석의 유의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본 계산에 활용한 금액은 미래 퇴직시점에 보유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 응답시점에 보유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석 결과, 이들이 기대하는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보유한 금액의 4.4배 이상이 필요했다. 퇴직연금 수령을 원하는 응답자의 기대 수령액은 평균 133만원, 기대 수령 기간은 평균 20년이었다. 할인율을 2%로 가정하고, 실제 월 133만원을 20년간 매달 받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면 2억 6904만원(이하 '필요금액')이다. 이를 실제 이들이 보유한 금액인 6104만원과 비교하면 약 2억 800만원(이하 '연금 부족액')이 부족하다. 모자란 금액만 해도 현재 저축액의 3.4배에 달한다. 이들이 연금 부족액을 퇴직시점

까지 추가로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현재 연봉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시점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하 '추가 적립액')을 추정해 보았을 때, 추가 적립액은 평균 4534만원에 그쳤다.(운용수익률 2% 가정) 부족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도표 III-10〉 퇴직연금 연금형태 수령 희망자의 기대 수령액과 필요 금액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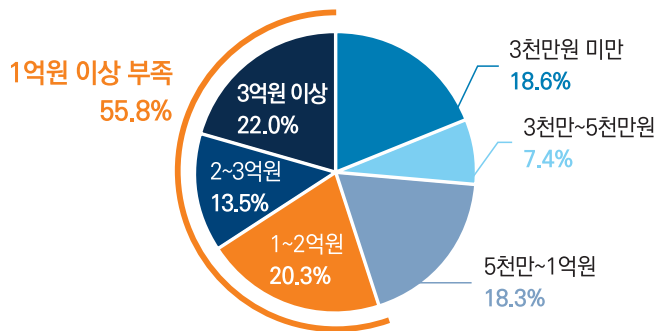


- 기대 수령액 : 월 133만원
- 기대 수령기간 : 20년

대상: 퇴직연금을 1,000만원 이상 보유했으며 연금 형태 수령을 희망하는 응답자 (n=829)

응답자들의 연금 부족액을 구간으로 나눠 분포를 살펴봤다. 부족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편인 응답자들이 18.6%로 나타났고, '3~5천만원'이 부족한 경우는 7.4%, '5천만원~1억원'이 부족한 경우가 18.3%이다. 나머지 55.8%의 응답자들은 기대한 만큼 연금을 받으려면 현재 보유금액보다 적어도 1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3억원 이상' 부족한 경우도 22%였고, '2~3억원' 부족한 경우가 13.5%, '1~2억원' 부족한 경우가 20.3%였다

〈도표 III-11〉 기대 연금액 대비 부족액 분포



대상: 퇴직연금을 1,000만원 이상 보유했으며 연금 형태 수령을 희망하는 응답자 (n=829)

퇴직연금 보유금액 규모에 따라 기대 수령액 및 기간, 부족액 규모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도표 III-12〉 참조) 현재 보유금액에 따라 기대 월 수령액은 최소 월 94만원~최대 월 25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필요금액은 1억 8052만원에서 5억 9642만원까지 다양했다.

퇴직연금 보유금액이 적은 집단일수록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컸다. 응답자들은 보유금액보다 2.4~10.7배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을 '1천만~3천만원' 보유한 경우 보유금액의 10.7배(〈도표 III-12〉의 '배수' 항목 참조)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차이는 보유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져, 가장 많은 퇴직연금을 보유한 '2억원 이상' 보유 집단의 경우 보유금액의 2.4배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유금액 대비 기대 수령액의 비율이 아닌, 부족액의 크기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고액보유자의 금액 격차가 더 컸다. '1천만~3천만원' 집단의 경우 기대금액인 1억 8052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 6357만원이 부족하지만, '2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기대하는 금액인 5억 9642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3억 5113만원이 부족하다.

한편 기대 수령기간의 범위는 19~24년으로 모든 집단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2억원 이상' 보유자의 경우 평균 기대 수령기간이 24년으로 다른 집단(19~20년)에 비해 소폭 길었다.

〈도표 III-12〉 퇴직연금 보유금액 규모에 따른 필요금액

퇴직연금 보유금액 규모	응답자 (명)	기대월 수령액 평균 (만원)	기대 수령 기간 평균 (년)	기대 수령액을 받기 위한 필요 금액(A) (만원)	현재 퇴직연금 보유금액(B) (만원)	부족액 (A-B) (만원)	배수 (A/B)
1천만~3천만원	261	94	19	18,052	1,695	16,357	10.7
3천만~5천만원	197	113	20	22,239	3,426	18,813	6.5
5천만~1억원	206	143	20	28,415	6,280	22,135	4.5
1~2억원	114	186	20	37,853	12,265	25,588	3.1
2억원 이상	51	258	24	59,642	24,529	35,113	2.4
전체	829	133	20	26,904	6,104	20,800	4.4

대상: 퇴직연금을 1,000만원 이상 보유했으며 연금 형태 수령을 희망하는 응답자 (n=829)

‘막연한 생각’, ‘낙관적 편향’으로 현실과 기대간 괴리 커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즉 응답자들이 연금액을 과대 계산하는 경향은 왜 나타났을까? 재무적 조사의 특성상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응답자들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진 연금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고 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막연히 자신이 받고 싶은 액수와 기간을 말했다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들의 기대 연금 수령기간이 보유금액과 관계 없이 ‘19~24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일부 뒷받침해준다.

둘째, 응답자들이 자신의 퇴직시점과 저축 가능액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퇴직까지의 기간이 충분히 길게 남았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앞으로 충분히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의 연간 퇴직연금 적립액이 평균 541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소득을 10년 정도 더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5~6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연금 부족액(2억 800만원)의 1/4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셋째, 응답자들이 퇴직급여나 연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인이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연금화(목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월, 분기 등 일정한 기간마다 나누어 연금처럼 받는 것)했을 때, 정확히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정밀하게 계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퇴직급여가 정확하게 정해지므로 미리 금액을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이런 오류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연금 수령액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낙관적 편향(optimism bias)’과 관련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실제보다 희망적인 견해를 갖는다. 예를 들어 미래를 예측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본 질문에서도 이러한 편향이 작용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몰랐던 응답자들의 경우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더 컸다. 응답자들이 퇴직연금 보유액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자신의 퇴직연금 보유액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 기대 연금 수령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액(2억 5860만원)은 실제 퇴직연금 보유금액(6743만원)의 3.8배 수준이었으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이 비율은 5.5배에 달했다. 이들이 기대한 금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2억 8436만원이지만 실제 보유금액은 5167만원에 그쳤다. 퇴직연금 보유액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보유액은 적고, 기대하는 금액은 더 큰 셈이다. 다만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보유액을 추측하여 답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표 III-13〉 퇴직연금 보유액 인지 여부에 따른 기대 연금 월 수령액 및 수령기간

퇴직연금 보유금액 규모	응답자 (명)	기대월 수령액 평균 (만원)	기대 수령 기간 평균 (년)	기대 수령액을 받기 위한 필요 금액(A) (만원)	현재 퇴직연금 보유금액(B) (만원)	부족액 (A-B) (만원)	배수 (A/B)
안다	493	130	20	25,860	6,743	19,117	3.8
모른다	336	138	20	28,436	5,167	23,269	5.5
전체	829	133	20	26,904	6,104	20,800	4.4

대상: 퇴직연금을 1,000만원 이상 보유했으며 연금 형태 수령을 희망하는 응답자 (n=829)

2. 은퇴자산 운용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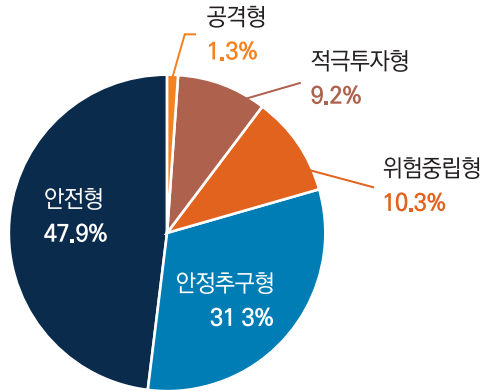
안전 및 안정추구형 79%, 중립형 10%, 적극투자 및 공격형 11%

50대의 투자 성향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안전 지향’이다. 수익을 높게 거두지는 못할지언정 손실만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다. 개인의 기대수익률과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투자성향을 ‘안전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공격형’ 5단계로 나누었을 때, 50대 직장인 중 79.2%는 ‘안정추구형 및 안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명 중 4명은 은



행 예금이나 국채, 금융채와 같이 투자원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낮은 자산에만 투자하려고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 투자형 및 공격형'은 10.5% 수준이다.

〈도표 III-14〉 50대 직장인의 투자성향 분포 (%)



대상: 50대 직장인 (n=1960)

국내 50대 직장인의 투자성향은 해외와 비교해 보아도 보수적인 편이다. 미국에서 2019년 18세 이상의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성향을 조사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38%는 공격적 투자성향(10점 만점 중 6~10점)을 보였다.(Northwestern mutual, 2019 Planning & Progress Study) 우리나라에서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형을 합친 비율이 10.5%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다. 위험중립형(10.3%)을 더해 총 20.8%에 그친다. 즉 미국 성인에 비해 국내 50대 직장인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표 III-15〉 투자성향 구분 및 적합한 상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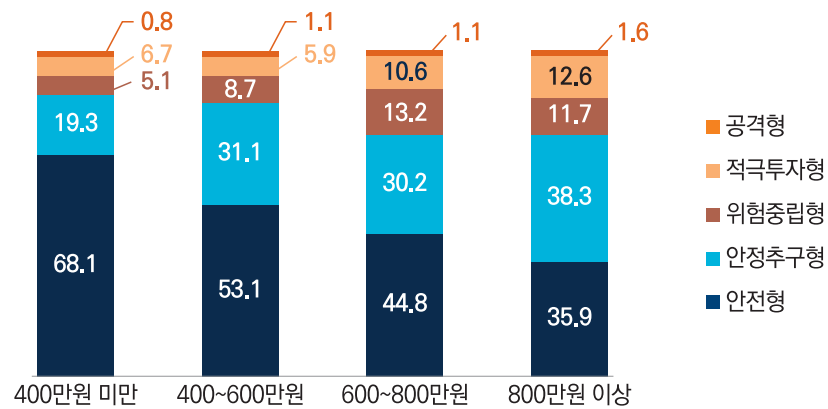
투자성향	의미	적합한 투자상품 예시
안전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예적금, 국채, MMF 등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금융채, 신용등급 높은 채권,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신용등급 중간 채권, 원금 일부보장 ELS, 혼합형 펀드 등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신용등급 낮은 채권, 주식, 원금비보장 ELS, 주가지수 추종형 주식형 펀드 등
공격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함.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ELW, 선물, 옵션, 파생상품, 주가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회사마다 투자성향의 유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가 위 표와 유사한 5단계 유형으로 투자성향을 구분하고 있음.

여유자금 많고, 금융지식수준 높을수록 안정추구 성향 덜해

50대 직장인의 '안전지향' 성향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자산이 적을수록, 금융지식이 부족할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안전형 및 안정추구형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공격형 및 적극투자형의 비중은 낮았다. '400만원 미만'인 경우 안전형이 68.1%, 안정추구형이 19.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안정추구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안전형의 비중은 53.1%(400~600만원) > 44.8%(600~800만원) > 35.9%(800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반대로 '적극투자형 및 공격형'의 비중은 소득수준에 따라 점차 커졌다. 400만원 미만에서는 이 비중이 7.5%에 불과했지만, 800만원 이상은 14.2%가 공격적 투자를 선호했다.

〈도표 III-16〉 가구소득별 투자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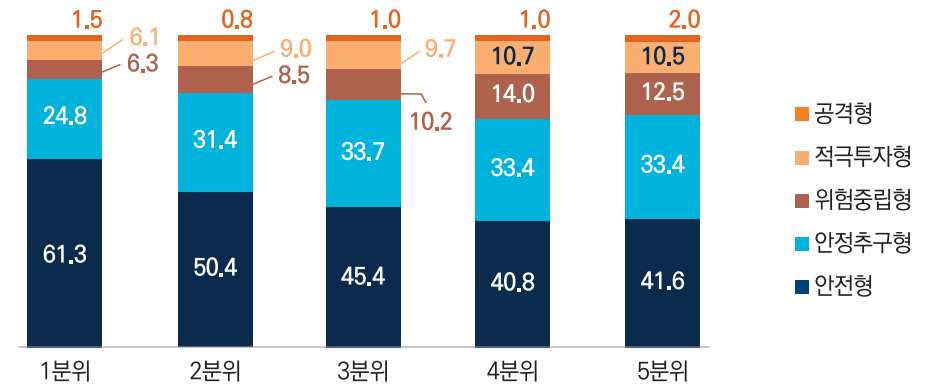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n=1960)

투자성향은 자산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순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5개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자산규모가 가장 적은 1분위에서는 '안전형' 비중이 61.3%에 달했지만, 자산규모가 가장 큰 5분위에서는 이 비중이 41.6%로 줄었다. 대신 공격형 및 적극투자형의 비중은 1분위가 7.6%인데 비해 5분위는 12.5%로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자산규모가 큰 경우에도 적극투자보다 위험중립이나 안정추구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III-17〉 자산규모별 투자성향 (%)



대상: 50대 직장인(n=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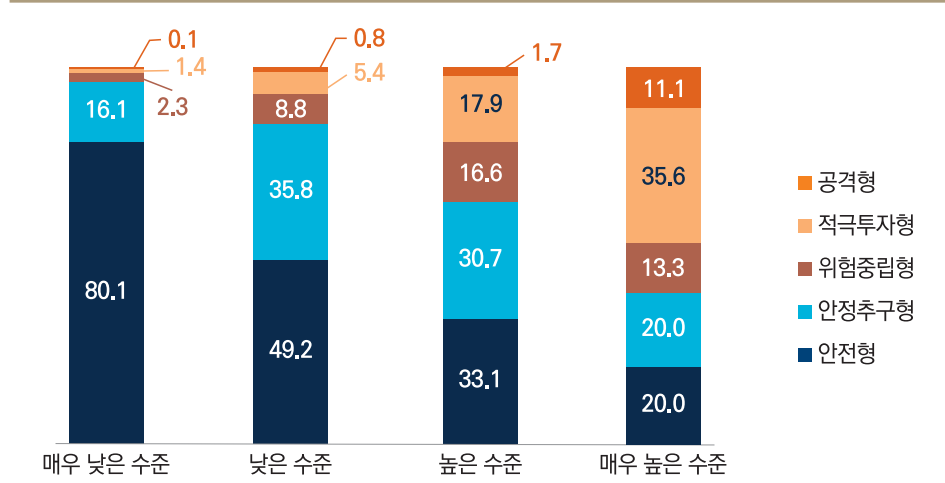
개인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성향을 살펴보면, 금융지식이 낮을수록 안정추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덜하다.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80.1%가 자신의 투자성향이 안전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 이 비율은 49.2%로 줄어 들고, '높은 수준'은 33.1%, '매우 높은 수준'은 20.0%로 더욱 낮아졌다. 즉, 금융지식이 부족한 응답자일수록 투자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감히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원금을 지키는 데 안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충분한 금융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자의 금융지식 수준은 곧 투자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Connecticut-Stamford 대학 Alex Wang 교수의 연구(2009)<sup>1</sup>에 의하면, 투자자의 주관적 지식

1. Wang, A. (2009). Interplay of investors' financial knowledge and risk taking. The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 10(4), 204-213.

(subjective knowledge)은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며, 이는 곧 투자자의 위험 감수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즉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지식과 판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며,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 주관적 지식이란 객관적 금융지식 수준을 테스트한 것이 아닌, 스스로가 금융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말한다.

〈도표 III-18〉 금융지식 수준별 투자성향 (%)



대상: 50대 직장인(n=1960)

### 50대 직장인의 금융지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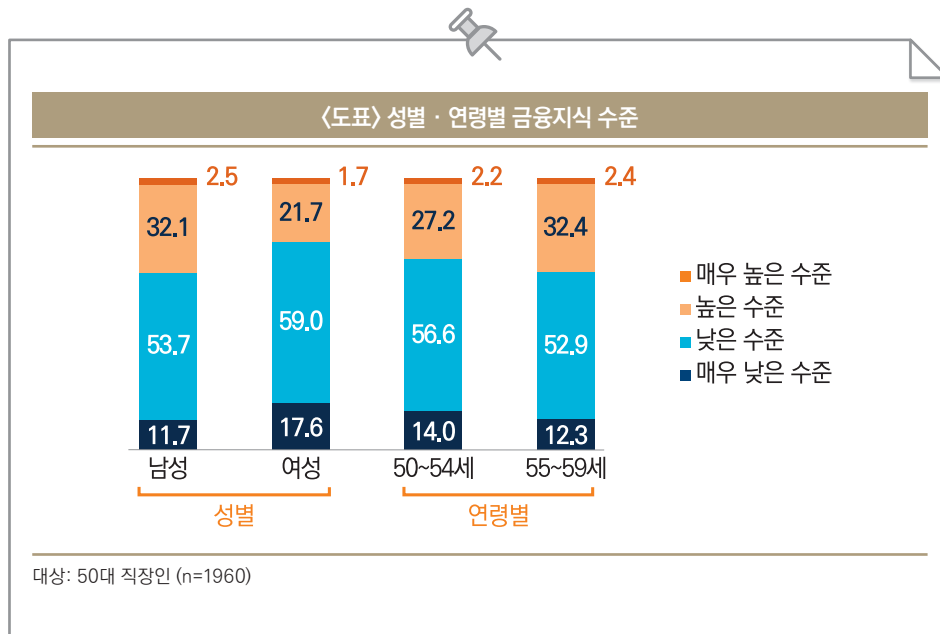
5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스스로의 금융지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55.1%가 '낮은 수준', 13.3%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합하면 68.4% 수준이다. 반대로 자신의 금융지식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29.3%였으며, 금융상품을 비롯해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도표〉 50대 직장인의 금융지식 수준

금융지식 수준	내용	응답자(명)	비율(%)
매우 낮음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적 없음	261	13.3
낮음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1080	55.1
높음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74	29.3
매우 높음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45	2.3
전체	-	1960	100.0

대상: 50대 직장인(n=1960)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은 여성보다 남성이, 50대 초반보다 후반이 비교적 높았다. 남성의 경우 34.6%는 자신의 금융지식이 '높은 수준~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여성은 이 비율이 23.4%로 비교적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후반의 주관적 금융지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50대 초반은 '높은 수준~매우 높은 수준'이 29.4%인데 비해, 50대 후반은 34.8%로 더 높게 나타났다.



### 노후생활비 중 63%는 종신연금으로 받기를 희망

50대 직장인의 노후 계획에서 연금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노후 생활비 중 얼마 가량을 종신연금으로 조달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희망 비율은 평균 62.7%에 달했다. 달리 말하면, 노후 생활비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약 63만원 정도는 종신으로 보장되는 연금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이 때 종신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막론하고 종신토록 보장되는 연금을 의미한다. 즉 구체적인 연금 가입 계획을 물었다기보다 종신 보장의 필요성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응답자들이 원하는 노후 생활비 수준을 살펴보면 부부 기준 월 233~355만원으로, 평균 302만원 수준이다.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152만원~208만원으로 평균 180만원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원하는 생활비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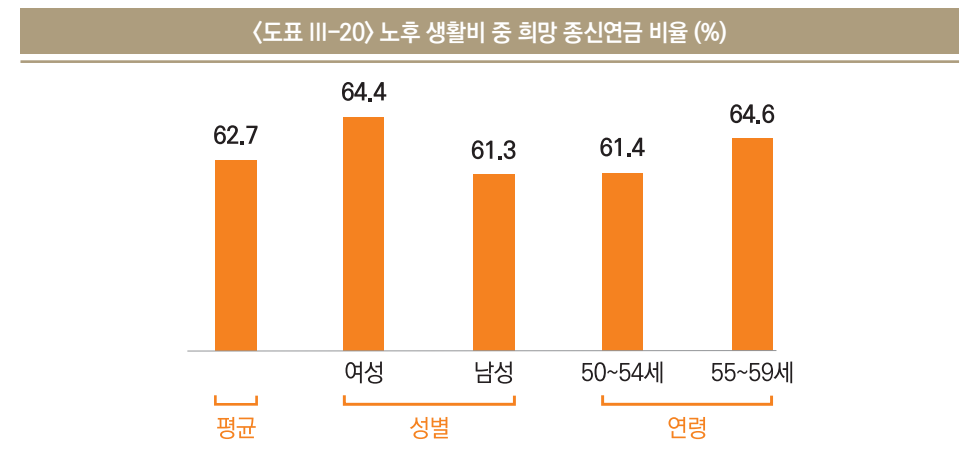
이 중 종신연금으로 받기 원하는 금액은 2인 기준 189만원, 1인 기준 113만원 정도다.

〈도표 III-19〉 노후 적정 생활비 (만원)

월 가구소득	노후 적정생활비(월)	
	1인(개인)	2인(부부)
400만원 미만	152	233
400~600	164	269
600~800	182	307
800만원이상	208	355
전체	180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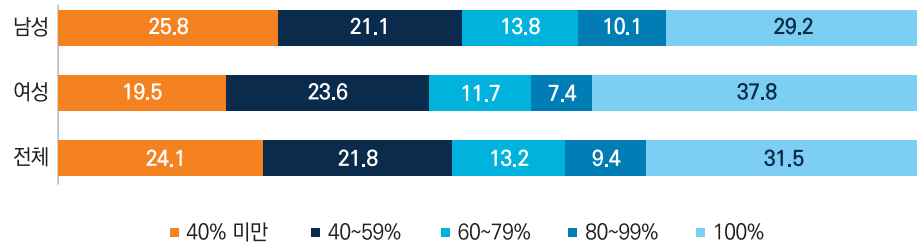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n=1960)

노후 생활비 중 희망 종신연금 비율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었다. 여성(66.4%)이 남성(61.3%)보다, 50대 후반(64.6%)이 초반(61.4%)보다 평균 희망 종신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종신연금에 대한 선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 전부(100%)를 종신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희망하는 응답자가 얼마나 되는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 10명 중 4명(37.8%)은 노후생활비 전액(100%)을 종신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했다.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29.2%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50대 직장인(n=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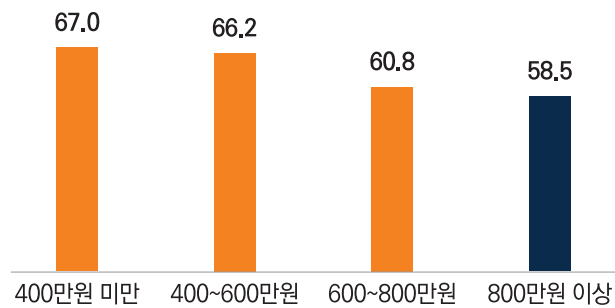
〈도표 III-21〉 성별 희망 종신연금 비율의 분포 (%)



대상: 50대 직장인(n=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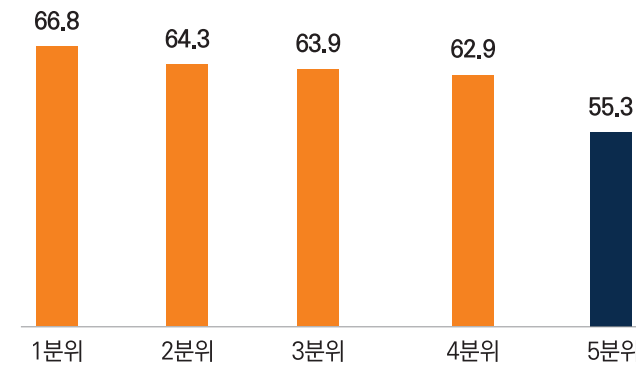
현재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계자산이 적을수록 희망 종신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희망 종신연금 비율은 67%였지만, 400~600만원 66.2%, 600~800만원 60.8%, 800만원 이상 58.5% 순으로 감소했다. 또 순자산 규모가 1분위인 경우 희망 종신연금 비율이 66.8%였으나 2분위 64.3%, 3분위 63.9%, 4분위 62.9%, 5분위 55.3%순으로 감소했다. 보유자산 규모가 가장 큰 5분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희망 종신연금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도표 III-22〉 소득규모별 희망 종신연금 비율 (%)



대상: 50대 직장인(n=1960)

〈도표 III-23〉 자산규모별 희망 종신연금 비율 (%)



대상: 50대 직장인(n=1960)

가구소득에 따라 희망 종신연금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왜일까? 현재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 적정생활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희망하는 종신연금 비율도 달라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도표 III-19〉에서 살펴보았듯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적정 노후생활비 역시 낮은 편인데, 이 경우 노후생활비 대부분을 생필품, 주거비 등의 필수적인 비용으로 쓰게 된다. 이들 비용이 삶에 꼭 필요한 만큼 이를 충실히 투자하여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클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적정 노후생활비도 높다. 노후생활비 중 필수생활비의 비중이 낮으므로, 종신연금 희망 비율 역시 비교적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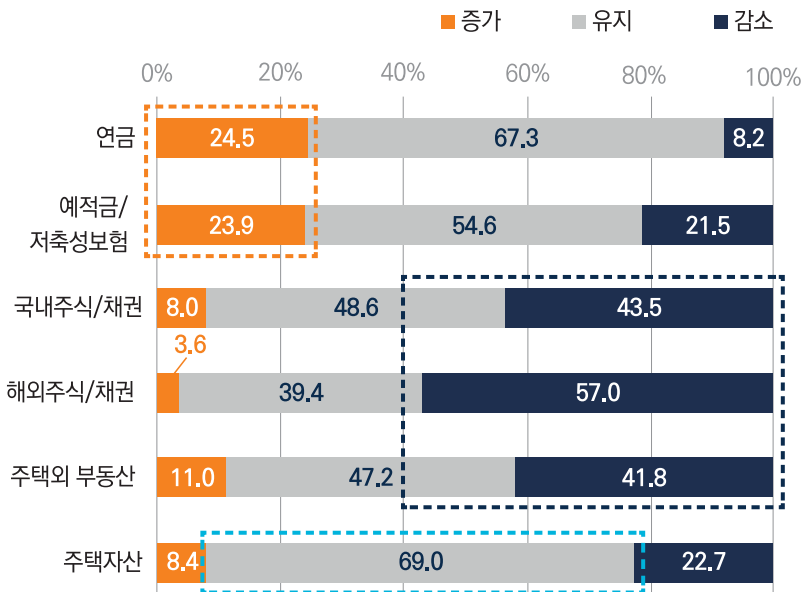
### 연금 늘리고, 금융투자외 주택 외 부동산은 줄일 계획

50대 직장인들에게 은퇴 후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싶은지 물었다. 각 자산군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응답하도록 했다. 본문항은 해당 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군의 비중 조정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실제 자산운용 계획이라기보다, 각 자산군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하위 자산군별로 '증가', '감소', '유지' 의견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유지'였다. 특히 주택의 경우 69.0%가 '유지'를 선택했다. 주택은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보니 주택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려고 할 때 이사 등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해 일단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도표 III-24〉 은퇴 전후 자산별 비중 증감 의향 (%)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비중 '증가' 의견이 '감소'보다 많은 자산군은 '연금'과 '예적금/저축성보험'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자산군은 현재 가계 금융자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향후 은퇴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이 두 자산군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높았다. 특히 연금의 경우 비중 증가를 택한 응답자가 24.5%로, 감소 응답자(8.2%)의 3배였다. 은퇴 후 근로, 사업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이를 대체해주는 연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저축성보험 역시 증가 의견(23.9%)이 감소 의견(21.5%)보다 많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들 자산은 기대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낮

으므로 은퇴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선호되는 자산이다.

반대로 나머지 자산군은 '감소' 의견이 '증가'보다 많았다. 이는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주택, 주택 외 부동산' 네 가지다.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43.5%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자(8%)의 5배였다. 해외 주식/채권 역시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견(57.0%) 역시 늘리겠다는 의견(3.6%)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자산이다. 은퇴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투자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역시 비중을 줄이겠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자는 41.8%로 비중을 줄이려는 이들(11.0%)의 4 배 정도였다. 주택 역시 비중 증가(8.4%)에 비해 감소(22.7%) 응답이 많았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 은퇴자산 운용시 각 자산군 비중 증감을 원하는 정도가 달랐다. '연금'과 '예적금/저축성 보험'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비중 감소 의견에 대해서는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비중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과 가구소득 간의 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웠다. 특정 자산군에 대해 비중을 늘리려는 경향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뚜렷하고, 반대로 특정 자산군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은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뚜렷했다.

		〈도표 III-25〉 가구소득 별 각 자산군 비중 증감 계획 (%)			
		400만원 미만	400-600	600-800	800만원 이상
연금	비중 증가	17.7	22.5	27.6	26.8
	비중 감소	16.5	7.2	7.7	5.8
예적금/저축성보험	비중 증가	21.3	23.3	23.8	26
	비중 감소	20.9	23	22.9	18.8
국내 주식/채권	비중 증가	3.5	6.9	10.4	8.7
	비중 감소	50.8	46.4	42	38.3
해외 주식/채권	비중 증가	0.8	3.3	5.3	3.6
	비중 감소	61.8	59.8	56.1	52.5
주택	비중 증가	6.7	7.4	10.6	8
	비중 감소	24.8	26.6	19.7	20.2
주택 외 부동산	비중 증가	3.9	8.4	14.8	13.3
	비중 감소	55.5	47.7	37.1	33.5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IV 장에서는 50대 직장인 가계의 은퇴자산 운용과 노후소득 마련 계획에 대해 다루었다. 각 자산과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산운용/활용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자산을 연금자산, 연금 외 금융자산, 부동산으로 나눈 뒤 그 특성에 맞춰 자산운용/활용 계획을 파악하였다.

연금자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는데, 각 연금을 어떤 방식(일시금, 연금형태)으로 인출할 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연금자산의 활용 계획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금형태 수령을 계획하는 집단의 경우 연금형태 수령을 원하는 이유와 예상 수령기간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향후 수령가능한 연금액을 산출했다. 일시금 수령을 계획하는 경우는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수령을 계획하는 이유와 인출금의 활용 용도를 파악하였다.

연금 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의 활용 계획을 먼저 파악하고, 세부 상품(예적금, 국내외 주식/채권)별로 운용 계획을 살펴보았다. 예적금에

대해서는 예금금리에 대한 만족도와 저금리 심화 시의 운용 계획을 조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제환경 변화와 관련된 예비은퇴자들의 금융자산 운용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외 금융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의 애로사항과 해외 투자 의향에 대한 질문을 통해 투자에 대한 태도와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계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태도와 활용계획을 파악하였다. 먼저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와 주택연금 가입 등 주택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목적 부동산 매수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보유 여부와 순자산 규모에 따라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1. 연금자산

연금은 가계가 운용하는 대표적인 은퇴자산이다. 본 절에서는 50대 직장인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자산을 은퇴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고, 어떻게 운용해나갈 계획인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연금' 또는 '연금자산'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연금을 의미하며, 공적연금은 제외한다.

### 5명 중 4명은 연금형태 인출 원해

50대 직장 근로자 가계의 70.1%는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퇴직연금 평균금액은 4301만원이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소득(약 515만원)을 고려하면 근속기간 약 8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이는 50대 직장인들이 아직

시에 인출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연금은 퇴직연금에 비해서 보유 비율이 낮고 평균 보유액도 적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을 말한다. 50대 직장인 가계 중 이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26.7%이며, 보유가계 평균 보유액은 2183만원이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대표적인데,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포함되어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보유 비율은 14.5%이며 보유가계의 평균 보유액은 1489만원이다.

개인연금 중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이 세제비적격 연금보다 우선하여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세제적격 연금 보유가계의 46%가 세제비적격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세제비적격 연금 보유가계 중 세제적격 연금을 보유한 비율은 84.9%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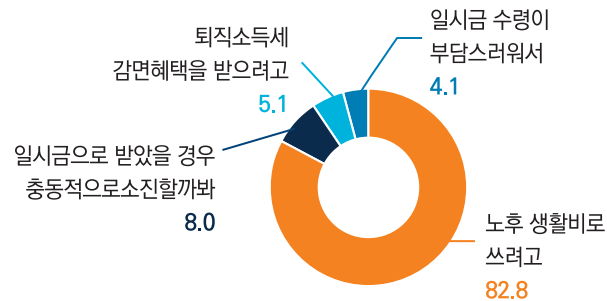
		퇴직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연금보험, 변액연금)
보유 가구 수		1374가구	524가구	284가구
보유 비율		70.1%	26.7%	14.5%
보유가계 평균 보유액		4301만원	2183만원	1489만원
수령 계획	연금 수령	82.8%	86.5%	77.8%
	일시금 수령	17.2%	13.5%	22.2%

적립한 연금자산을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 계획인지 물었다.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자는 만 55세 이후에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5명 중 4명은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각 연금 종류별로 보면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겠다는 경우는 82.8%였으며,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86.5%,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77.8%였다. 현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실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려는 이유 중 82.8%가 '노후 생활비로 쓰기 위함'이었다. 나머지 12.1%는 연금소유자의 지출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세제혜택이 주요 이유인 경우는 5.1%로 소수였다.

〈도표 IV-2〉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려는 이유 (%)



대상: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계획인 가계 (n=1138)

### 연금수령 계획 기간은 18~20년, 수령가능액은 월 57만원

은퇴 후 연금자산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계획이라고 답한 가계가 그들이 축적한 연금자산으로부터 매월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계산해봤다. 각 가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자산,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원하는 연금수령 기간을 반영하였다.

각 가계의 연평균 연금 적립액은 퇴직연금 443만원, 세제적격 개인연금 199만원,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155만원이었다. 퇴직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순이다. 원하는 연금수령 기간은 퇴직연금 20년,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각각 19년, 18년이었다.

다음의 순서로 연금형태 수령을 원하는 가계가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추산할 수 있었다. 먼저 응답자의 예상 퇴직연령과 현재 연령을 이용해 향후 추가 적립 가능기간을 추출했다. 현재 연금 보유액(①)과 연평균 적립액(②)을 추가 적립 가능기간(③) 동안 연 2% 수익률로 운용하게 되면, 퇴직 시점 예상 연금총액(④)이 계산된다. 계산된

퇴직 시점 예상 연금총액은 퇴직연금이 8383만원, 세제적격 개인연금 4116만원,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3036만원이다. 이를 가계가 응답한 연금수령 계획 기간(⑤) 동안 연 2%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인출한다고 가정했다. 이 때 예상되는 월 연금 수령액(⑥)은 퇴직연금 49만원, 세제적격 개인연금 25만원,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20만원이다.

〈도표 IV-3〉 연금수령 희망 가계의 연금 적립/인출 계획에 따른 예상 수령액 산출

	퇴직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연금보험)
	1138명	453명	221명
① 현재 연금 보유액	4504만원	2232만원	1558만원
② 연평균 적립액	443만원	199만원	155만원
③ 추가 적립 가능 기간 (예상 퇴직연령** - 현재 연령)	7년	7년	7년
④ 퇴직 시점 예상 연금총액	8383만원	4116만원	3036만원
⑤ 연금수령 계획 기간	20년	19년	18년
⑥ 예상 월 연금 수령액	49만원	25만원	20만원

\* ①, ②, ⑤ 는 설문 응답 수치이며, ③, ④, ⑥ 은 설문 응답을 일정한 가정에 근거해 계산한 수치임.

\*\* 응답자의 현재 연령은 54세, 예상 퇴직연령은 61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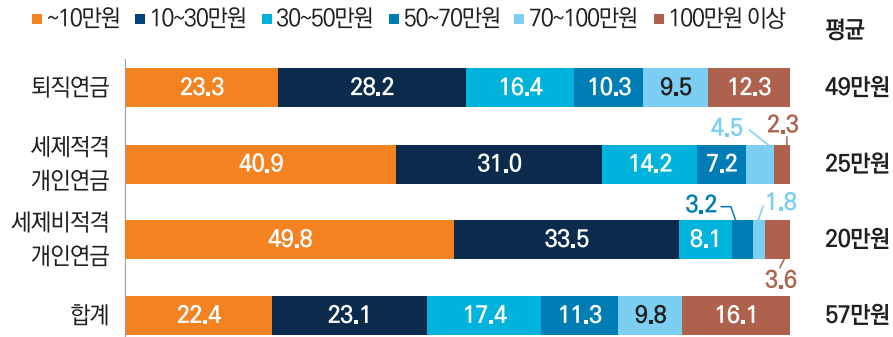
가계가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의 분포를 살펴봤다. 퇴직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월 연금액은 10~30만원이 28.2%로 가장 많았다.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만원 이하가 40.9%, 49.8%로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 보유 가계 중 월 50~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0.3%인데, 세제적격,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각각 7.2%, 3.2%에 그쳤다.

가계마다 연금종류별 보유 여부와 수령계획이 다른데, 어느 하나의 연금자산이라도 연금형태로 수령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50가구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각 가계가 계획한대로 보유한 연금자산을 연금형태로 인출한다고 할 때, 각 가계별 예상 연금액은 월 57만원이었다. 월 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절반에 가깝지만, 6가구 중 1가구(16.1%)는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됐다.

예상 연금수령액의 분포를 살펴 봤을 때, 개인연금은 보유 비율도 낮고 적립액도 적

어서 그 단독으로는 50대 직장인 가계에 주요 노후소득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가진 가계가 개인연금을 부가적으로 보유할 경우 실효성있는 노후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표 IV-4〉 예상 연금 수령액 분포 (%)



대상: 연금자산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계획인 가계 (전체 n=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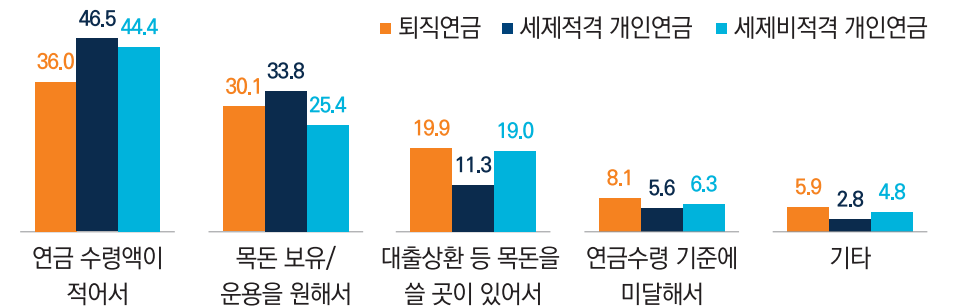
### 연금자산의 일시금 수령 이유, 예상 연금액 적거나 목돈을 원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기를 계획하는 가계도 있다. 연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보유 가계 중 일시금 수령 계획을 밝힌 경우는 17.2% 였고,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3.5%,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22.2%였다.

연금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수령액이 적어서’ 였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의 36%,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의 46.5%, 44.4%가 이를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들이 보유한 연금자산을 살펴보니 퇴직연금 2630만원, 세제적격 개인연금 1558만원,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983만원이었다. 다른 이유로 일시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나,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 수령을 희망한 가계들보다 이들 가계의 연금자

산 보유액이 적은 모습을 보였다. (〈도표 IV-6〉 참조)

〈도표 IV-5〉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이유 (%)



대상: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 (퇴직연금 n=236, 세제적격 개인연금 n=71,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n=63)

〈도표 IV-6〉 사적연금 수령형태 및 일시금 수령이유별 연금자산 적립액 차이 (만원)

		퇴직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연금 형태 수령		4,504	2,232	1,558
일시금 수령		3,323	1,866	1,246
일시금 수령 이유	연금 수령시 수령액이 적어서	2,630	1,558	983
	그 외 이유	3,713	2,134	1,456

대상: 사적연금 보유 가계 (퇴직연금 n=1,374, 세제적격 개인연금 n=524, 세제비적격 n=284)

연금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이유에서 두 번째로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목돈 보유/운용을 원해서’ 였다. 목돈을 보유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거나, 목돈을 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는 의사를 포함한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의 30.1%,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의 33.8%, 25.4%가 이 이유를 택했다.

‘대출 상환 등 목돈을 쓸 곳이 있어서’ 일시금 인출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의 19.9%,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의 11.3%, 19%가 이 이유를 택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일시금 수령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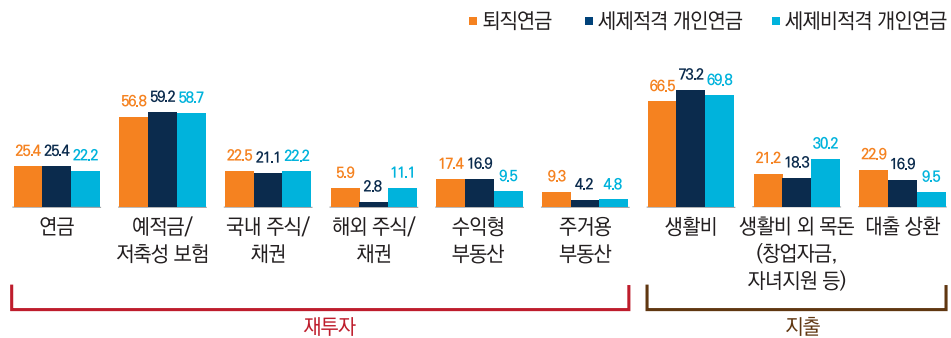
인 '목돈 보유/운용' 과 비교해 목적이 '지출 필요'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는 측면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하여 '목돈을 원해서'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로 보면 그 비율이 44.4%~50%에 이른다.

**일시금 수령 연금, 생활비와 예적금/저축성 보험에 주로 쓸 예정**

연금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어디에 쓸지 알아봤다. 제시된 용도는 총 9가지인데, 연금, 예적금/저축성 보험,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등 6가지는 '재투자'에 속하며, 생활비, 생활비 외 목돈, 대출상환 등 3가지는 '지출'에 해당한다. 응답자는 9가지 용도 중 최대 3개를 선택하였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계획인 가계 중 열에 일곱(66.5~73.2%)은 이를 생활비로 쓰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예적금/저축성 보험'으로, 10가구 중 6가구(56.8~59.2%)가 이를 선택했다. 일시금으로 찾은 연금자산은 생활비로 쓰이거나 예적금/저축성 보험에 예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연금, 국내 주식/채권, 생활비 외 목돈이 20% 내외의 선택을 받았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자산의 활용 계획에 있어 연금 종류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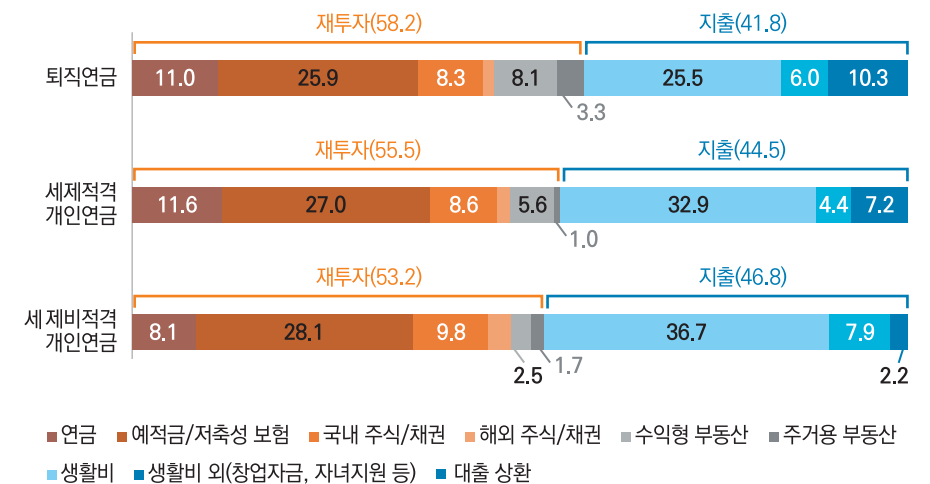
〈도표 IV-7〉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의 활용 계획 (% , 복수응답)



대상: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 (퇴직연금 n=236, 세제적격 개인연금 n=71,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n=63)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선택한 용도에 연금자산 일시금을 얼마씩 쓸 것인지 알아봤다. 응답자 자신이 선택한 2-3가지 자금 용도에 100%를 합계로 일시금을 배분하게 한 것이다. 앞서 '생활비'와 '예적금/저축성 보험'이 연금자산 일시금의 주 용도로 꼽혔던 만큼 이들 용도에 할애된 비중이 높았다. 연금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들은 생활비로 일시금의 25.5~36.7%를 지출하고, 예적금/저축성 보험에 25.9~28.1%를 예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 어떤 연금이나에 따라 생활비로 쓰는 비중의 차이가 컸다. 퇴직연금 일시금 중 생활비로 쓰는 부분은 25.5%이지만, 세제적격 개인연금 일시금 중에서는 36.7%가 생활비로 쓰여 11.2% 포인트 차이가 났다.

〈도표 IV-8〉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자산의 용도별 배분 비중 (%)



대상: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 희망 가계 (퇴직연금 n=236, 세제적격 개인연금 n=71,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n=63)

제시된 9가지 용도를 재투자와 지출로 묶어 비교해보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연금자산 중 지출로 소진될 몫보다 재투자될 몫이 더 많았다. 연금 상품별로 보면, 퇴직연금 일시금은 재투자에 58.2%, 지출에 41.8%가 쓰이고 세제적격 개인연금 일시금은 재투자에 55.5%, 지출에 44.5%가 쓰인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일시금은 재투자에 53.2%, 지출에 46.8%가 배분됐다. 퇴직연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5800만원이 재투자되

고 4200만원이 생활자금으로 쓰이지만, 변액연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5300만원을 재투자하고, 4700만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다.

## 2. 연금 외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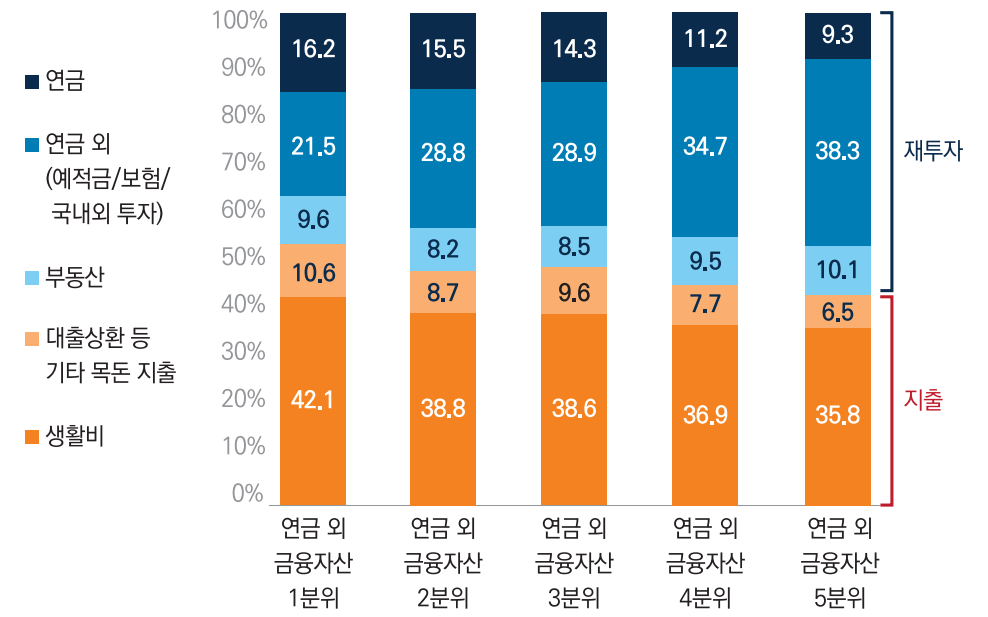
### 연금 외 금융자산 많을수록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

50대 직장인들은 평균 9649만원의 연금 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금 외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중 연금과 거주주택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예적금/저축성보험',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을 말한다.

은퇴 후 연금 외 금융자산을 어떤 목적에 얼마나 쓸지 파악해 본 결과, 연금 외 금융자산 중 47.4%는 생활비나 대출상환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52.6%를 재투자할 계획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비로 38.6%를 지출하고, 예적금/저축성보험에 21.8%를 예치하며, 연금에는 13.4%를 재투자할 계획이다.

연금 외 금융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응답자를 다섯 그룹을 구분한 뒤, 보유하고 있는 연금 외 금융자산을 은퇴 후 어느 용도에 얼마씩 쓸 계획인지 비교하였다. 연금 외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더 많은 비중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연금 외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은 연금 외 금융자산 규모가 연금 규모와도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표IV-9> 하단 참조) 연금 외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연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금 외 금융자산을 은퇴 생활비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도표 IV-9> 연금 외 금융자산 규모 별 활용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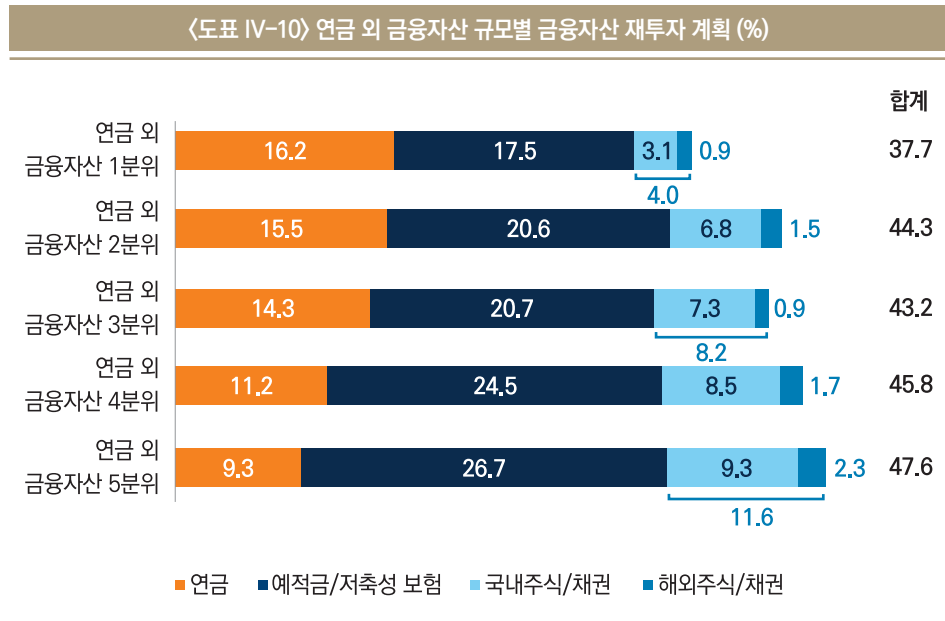


	연금 외 금융자산 1분위	연금 외 금융자산 2분위	연금 외 금융자산 3분위	연금 외 금융자산 4분위	연금 외 금융자산 5분위
N (명)	485	373	344	374	384
연금 외 금융자산 평균값 (만원)	494	2,178	4,797	9,419	33,040
연금자산 평균값	2,918	4,060	5,021	6,940	7,343

대상: 연금 외 금융자산 보유 가계 (n=1960)

연금 외 금융자산을 재투자하는 계획에서 금융자산 부분만 더 자세히 살펴봤다. 연금 외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일수록 이를 연금에 넣는 비중이 적고, 예적금과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많았다.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비중 역시 연금 외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일수록 높긴 하지만 그 수치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 및 해외 주식/채권 투자를 합해 보면 연금 외 금융자산 1분위 가계가 이에 투자하는 비중은 4.0%지만, 3분위 가계는 8.2%, 5분위 가계는 11.6%로 점점 커진다. 연금 외 금융자산이 많

은 가계일수록 국내외 주식/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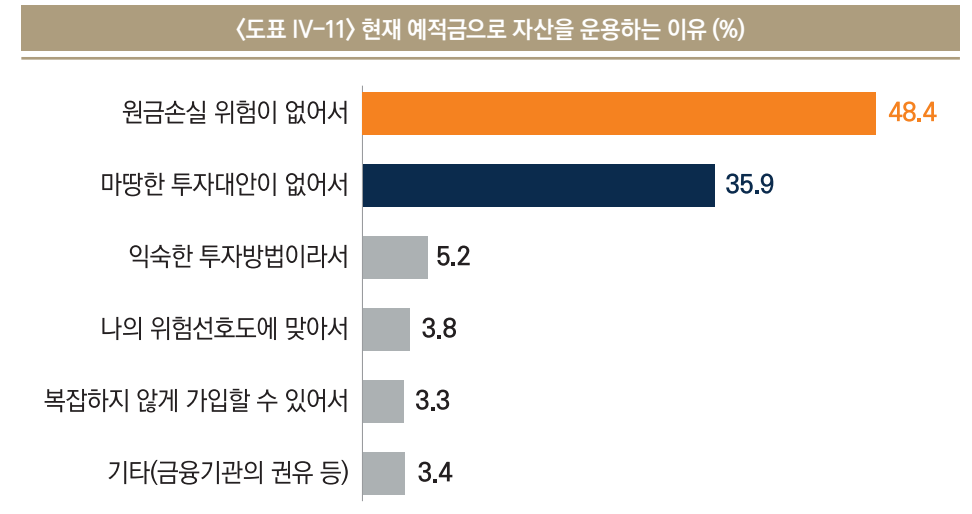
대상: 연금 외 금융자산 보유 가계 (n=1960)

### 예금 보유자, 마이너스 금리되면 투자자산으로 이동

50대 직장인 가계는 평균 4930만원의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외 금융자산의 5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먼저 이들 가계가 예적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느끼는 만족도와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다. 나아가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어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할 경우, 이들 가계의 예금 운용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다.

먼저, 예적금 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예적금 보유 가계는 예적금 금리에 대해 4점 만점에 1.75점을 주어 대체로 불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기 때문'(48.4%)이었다. 예적금에 대해 원금이 보존되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예적금 외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35.9%)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이 대답에는 현재 예적금에 대한 불만이 녹아있는데, 예적금이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대안이 없어 현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예적금 보유가계 (n=1,869)

예적금 금리에 대해 불만족하는 모습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금리를 비롯한 경제환경 및 금융시장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50대 직장인 가계의 예적금 운용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예적금 금리가 더 떨어져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이르게 될 경우 예적금 보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물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개인 대상 예금의 명시적 이자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50대 직장인 가계가 예적금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파악하였다.

응답자의 31.5%는 예적금 금리가 더 떨어져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겠다'(29.2%)는 응답은 그 다음이었다. 4명 중 1명(25.0%)은 예적금 대신 현금을 직접 보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14.2%는 금리가 더 떨어지더라도 계속 예적금에 가입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예금의 이자수익보다 은행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해준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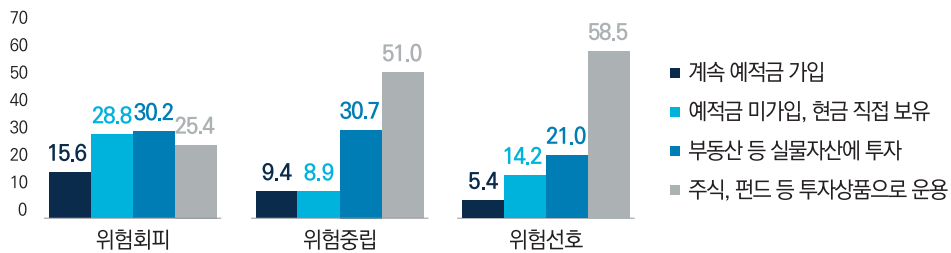
〈도표 IV-12〉 초저금리 시 예적금 운용 계획 (%)



대상: 예적금 보유가계 (n=1,869)

한편, 응답자의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초저금리 시 예적금 운용 방향이 달라졌다. 위험선호 그룹은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 예적금 대신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위험회피 그룹은 예적금의 대체안으로 현금,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을 고루 선호했다. 위험중립 그룹은 위험선호 그룹에 비해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도표 IV-13〉 위험감수성향별 초저금리 도래시 예적금 운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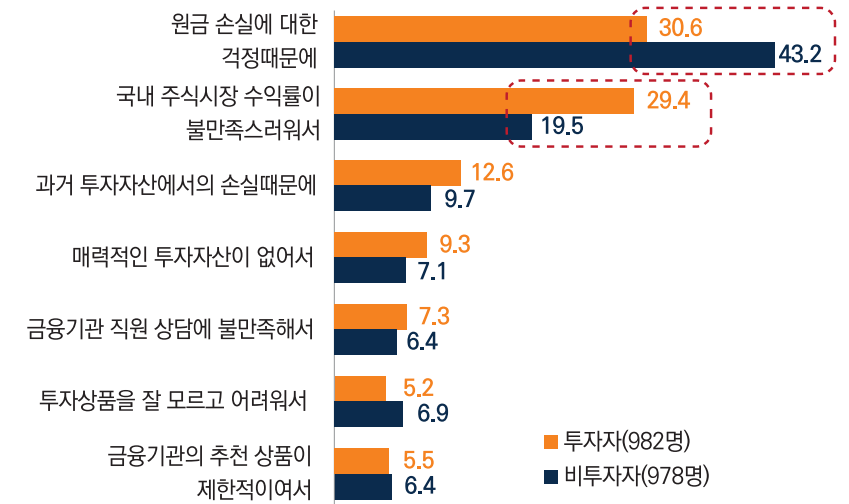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은퇴 후 금융투자 줄이려는 이유는 '원금손실 우려' 와 '수익률 불만족'

국내 주식/채권과 해외 주식/채권은 은퇴자산 운용시 해당 자산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자산군이다. 50대 직장인 중 국내 주식/채권 투자를 줄이겠다는 경우는 43.5%였으며, 해외 주식/채권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큰 57%에 달했다. 은퇴 후 국내외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려고 국내 투자자산 투자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36.8%)'와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대한 불만(24.5%) 이 주된 이유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투자자들은 비투자자에 비해 '수익률에 대한 불만족(29.4%)'을 더 큰 어려움으로 느꼈고, 비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43.2%)' 이 컸다.

〈도표 IV-14〉 국내 주식/채권 투자 여부에 따른 국내 투자의 애로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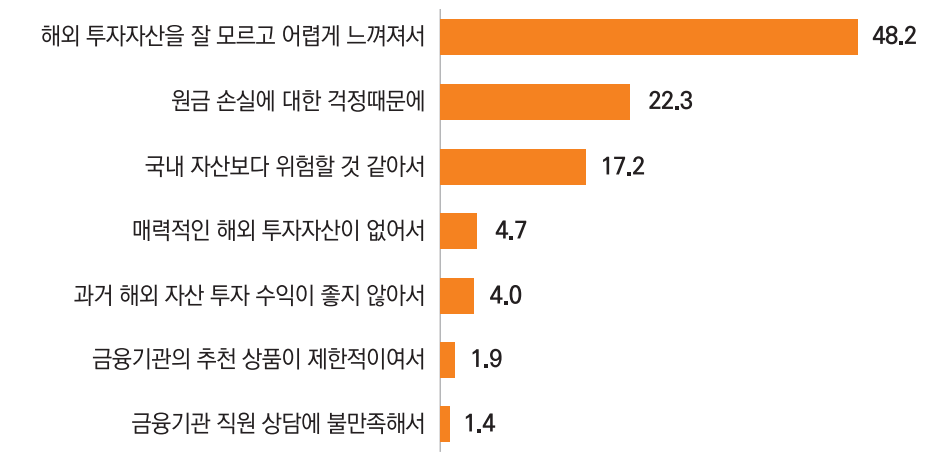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정보 부족과 선입견이 해외 투자의 장애물로 작용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는 해외 주식/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0대 직장인 가계 중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이들은 10명 중 1명(9.3%)이 채안되는 상황이다.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말한 이유는 ‘해외 투자자산을 잘 모르고 어렵게 느껴서’ (48.2%) 였다. 그 다음이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22.3%) 이었다. ‘국내자산보다 위험할 것 같아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17.2% 였다.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 외에도 관련 정보의 부족과 해외 자산에 대한 선입견이 해외 투자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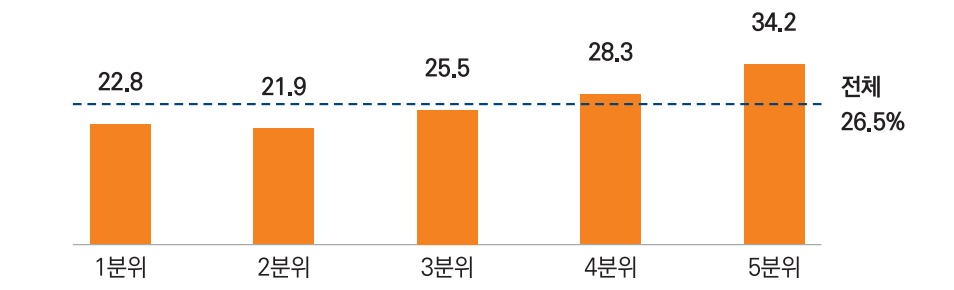
〈도표 IV-15〉 해외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



대상: 해외자산 비투자 가계 (n=1,778)

앞서 살펴 본 은퇴 후 자산운용계획에서 가계의 57%가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4명 중 1명(26.5%)은 향후에 해외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이 많을수록 해외투자 의향이 강했다. 순자산 1분위와 2분위는 해외투자 의향이 각각 22.8%, 21.9%에 그쳤으나 3분위 25.5%, 4분위 28.3%로 가면서 점차 높아졌다. 5분위에서는 34.2%가 해외투자 의향이 있었다.

〈도표 IV-16〉 자산 규모별 해외투자 의향 (%)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한편, 해외투자를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 향후 해외투자 의향이나 해외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에 차이가 있었다. 해외 투자자산을 보유한 경우 61.5%가 향후에도 해외투자를 하겠다고 답했으나, 해외투자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22.9%만 투자 의향이 있었다. 투자 경험이 향후 투자 의향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에는 기대수익률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해외투자자산을 보유한 그룹은 12.6%의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해외투자자산이 없는 그룹은 4.1%의 수익률을 기대했다. 두 그룹 사이에 해외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도표 IV-17〉 해외투자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해외투자 의향 및 기대수익률 (%)

구분		해외투자 의향	기대수익률
해외투자자산 보유 여부	보유 (n=182)	61.5	12.6
	미보유(n=1,778)	22.9	4.1
전체 평균		26.5	4.9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 3.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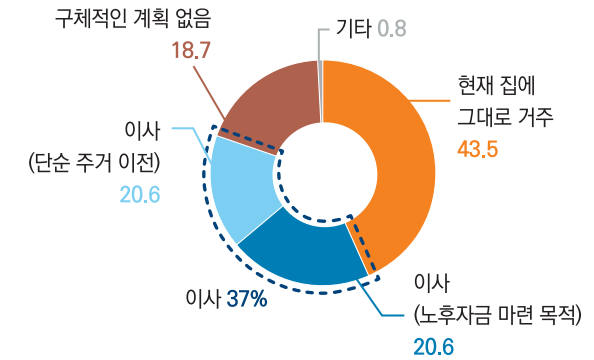
부동산은 50대 직장인 가계 자산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은 단일 자산 중 에서 그 비중이 압도적(63.9%)으로 높다. 따라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 운용과 생활비 인출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50대 직장인 가계가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은퇴 후 부 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 5가구 중 1가구는 노후 자금 확보 위해 이사 계획

50대 직장인 가계의 82.8%는 자가 거주 중이고 전·월세 거주는 16.7% 다. 이들에게 은퇴 전후 주거계획을 물었을 때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43.5%)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도 37%로 적지 않았다. 이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인데, 단순한 거주지 이전 목적 이사가 16.4%,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이사가 20.6% 였다. 5가구 중 1가구는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이사, 즉 주택 다운사이징 (down-sizing)을 계획하고 있었다. 주택 다운사이징은 주택 규모(면적)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주택 시세가 더 싼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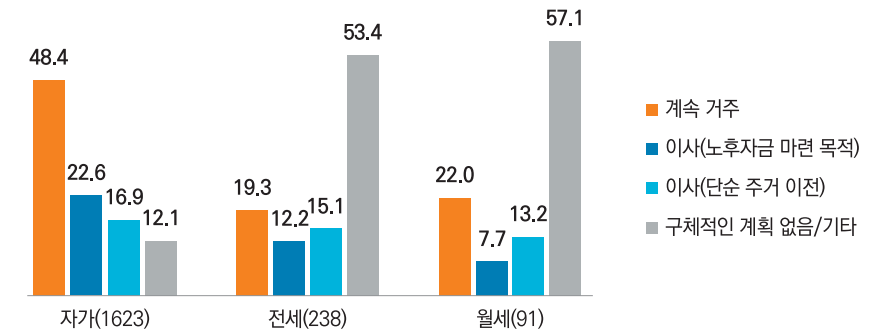
거주형태 별로 살펴보면, 현재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는 ‘머물던 집에 계속 거주하겠 다’(48.4%)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전·월세 거주 가구는 은퇴 전후 이사 계획을 ‘구체적 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53.4~57.1%)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아무래도 주택이나 임차 보증금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주택 다운사이징이 가능하다보니 전·월세 거주 가계보다는 자가 거주 가계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이사를 계획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표 IV-18〉 은퇴 전후 주거 계획 (%)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도표 IV-19〉 거주형태별 은퇴 전후 주거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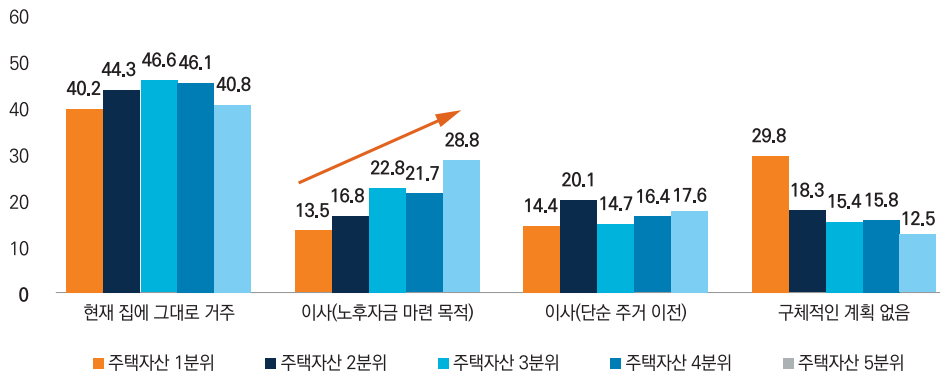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은퇴 전후 주거계획을 주택자산규모 별로 살펴보았다. ‘주택자산’을 보유 주택 가격 과 거주지 임차보증금을 합한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현재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택자산 분위별로 비교해보면 40.2~46.6% 사이의 완만한 역U자 형태 를 보였다. 주택자산 3분위 가계가 현재 집에 머물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6.6%).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이사는 주택자산 5분위 가계의 응답이 28.8%로 가장 높았다. 주택의 자산가치가 클수록 이사 후 노후자산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는 차액이 커져 다 운사이징(down-sizing) 효과가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도표 IV-20〉 주택자산 분위별 은퇴 전후 주거 계획 비교 (%)



	가구 수	주택 보유 비율(%)	평균 주택자산 규모(만원)
주택 자산* 1분위	453	56.1	6,936
주택 자산 2분위	334	96.4	21,802
주택 자산 3분위	408	95.1	33,970
주택 자산 4분위	373	97.9	52,076
주택 자산 5분위	392	99.5	109,808

\* 주택자산은 거주주택 임차보증금과 보유 주택 가액을 합한 값임.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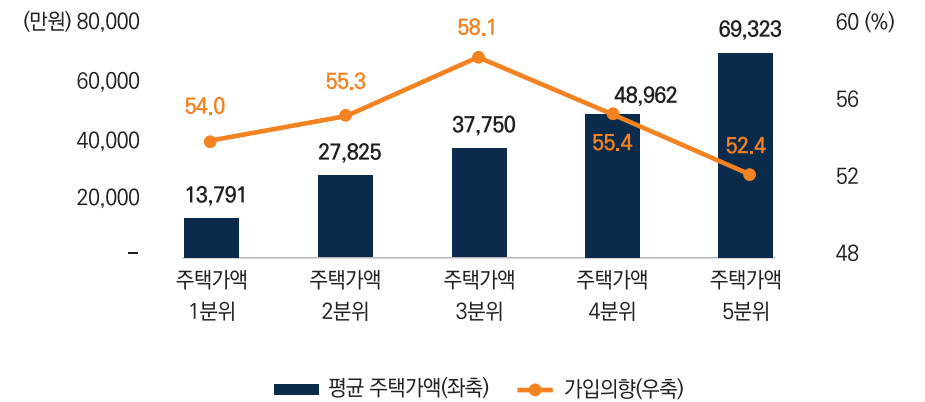
### 주택연금에 돈이 떨어진 후 가입할 계획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상품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담보로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제도다. 금융자산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 가계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50대 직장인은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50대 직장인 중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9억원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54.8%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택가액 분위별 가입 의향을 비교해보면 역 U자 형태를 띠었다. 평균주택가액이 3억 7750만원인 3분위 가계의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가액 5분위의 가입 의향이 52.4%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여유자산이 많아 주택연금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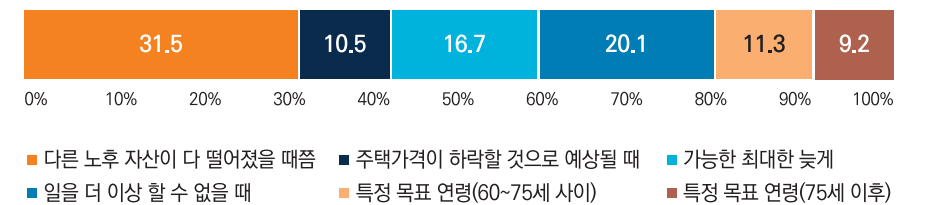
〈도표 IV-21〉 주택가액 분위 별 평균 주택가격 및 주택연금 가입 의향(만원, %)



대상: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가계 (n=1508)  
\* 2019년 12월 기준 보유주택 합산 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함.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기는 '다른 노후자산이 다 떨어졌을 때' (31.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20.1%)로 더 이상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가능한 최대한 늦게' 라고 답한 경우가 16.7%였고, 75세 이후에 받겠다는 응답도 9.2%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 경향으로 봤을 때, 50대 직장인들은 대체로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비를 얻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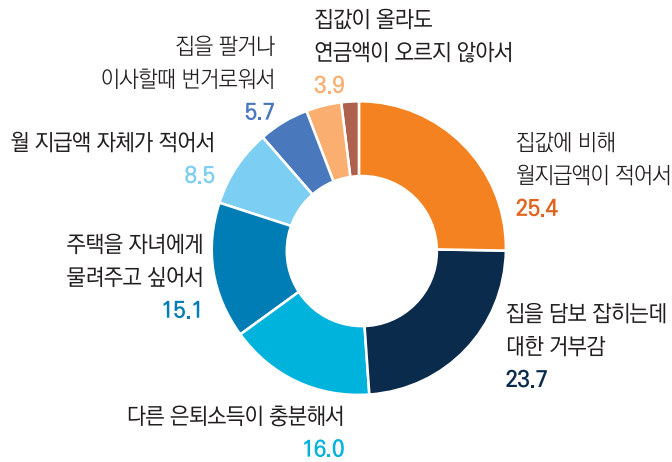
〈도표 IV-22〉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기(%)



대상: 주택연금 가입의사가 있는 가계 (n=1033)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집 값에 비해 월 지급액이 적다고 느껴서’(25.4%) 였다. 월 지급액 자체가 적다고 답한 8.5%를 더하면, 33.9%가 지급액이 적은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데 대한 거부감’(23.7%)도 많이 꼽힌 이유이다. 그 외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15.1%)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비중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다.

〈도표 IV-23〉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



대상: 주택연금 가입 의향 없는 가계 (n=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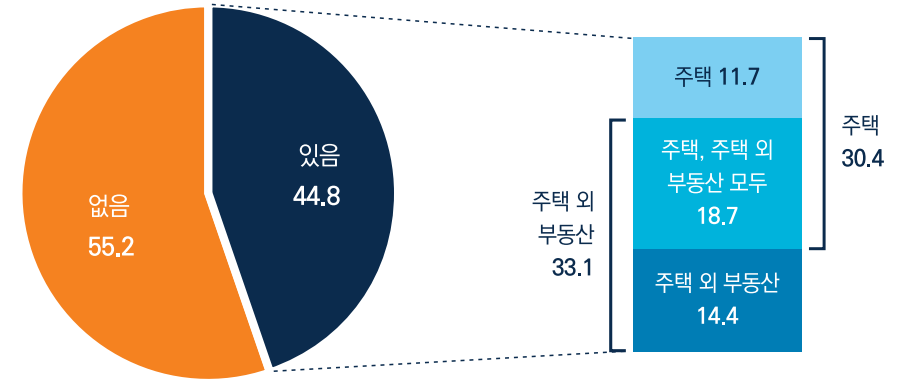
**은퇴 후 투자목적 부동산 매수 원하는 가계 44.8%, 주택 매수 수요 높아**

앞에서는 노후 자금 확보와 관련된 거주주택 활용방안(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 분석에서는 50대 직장인 가계가 노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떤 인식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을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0대 직장인의 44.8%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들을 분류해 보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모두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18.7% 였고, 주택만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가 11.7%, 주택 외 부동산만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14.4% 였다. 합하면 주택 투자 의향이 30.4%, 주택 외 부동산 투자 의향이 33.1%다.

〈도표 IV-24〉 은퇴 후 투자목적 부동산 매수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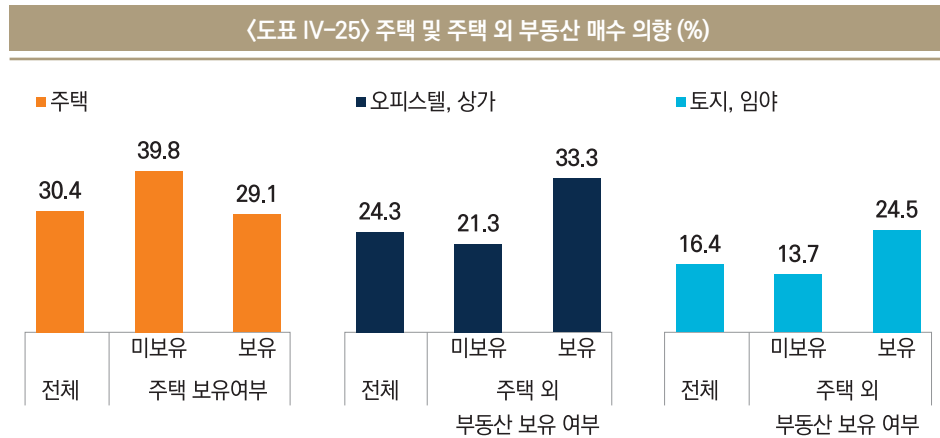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주택 외 부동산 매수 의향을 나누어 보면, 오피스텔/상가를 사려는 경우가 24.3%, 토지/임야를 사려는 의향은 16.4% 였다. (〈도표 IV-25〉 참조) 은퇴 후 부동산 투자 의향은 주택(30.4%) > 오피스텔/상가(24.3%) > 토지/임야 (16.4%) 순 이었다. 흔히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기의 부동산 투자라는 점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선호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택 매수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은퇴 후 부동산 매수 의향을 현재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살펴봤다. 먼저 주택 매수 의향을 살펴보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주택 매수 의향(39.8%)이 주택을 보유한 가계(29.1%)보다 높았다. 주택이 없는 가계가 주거 안정을 원하는 수요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보유가계가 미보유가계에 비해 주택 외 부동산 매수 의향이 더 높았다. 오피스텔/상가 매수 의향을 보면, 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매수 의향은 21.3%이나 보유한 가계의 매수 의향은 33.3%로 더 높았다. 토지/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외 부동산 미보유 가계의 토지/임야 매수 의향(13.7%)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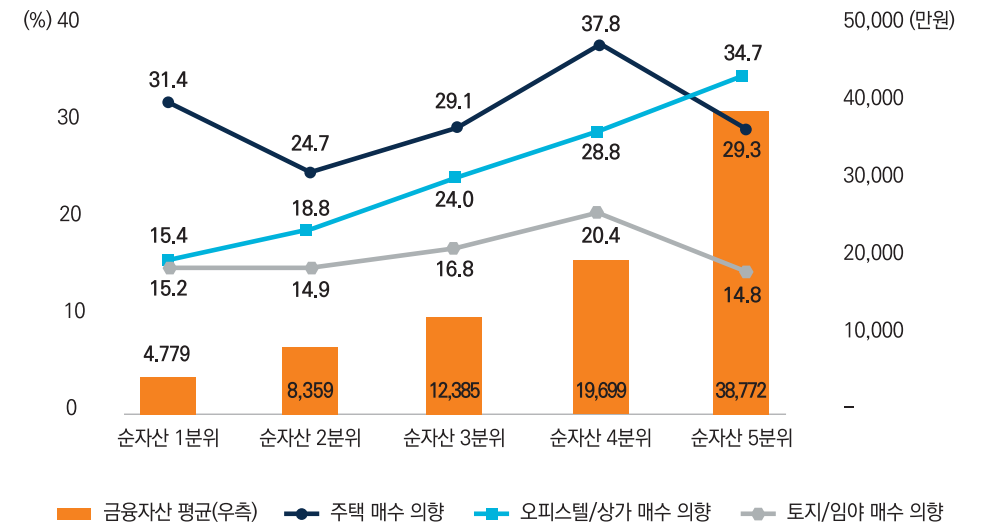
보유 가계의 매수 의향이 24.5%로 더 높았다. 기존의 부동산 투자 및 보유 경험이 은퇴 후 주택 외 부동산 투자 의향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자산규모별 은퇴 후 부동산 투자 의향을 살펴봤다. 앞서 주택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가 미보유 가계보다 주택 외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 데에는 자산규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오피스텔, 상가와 같이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순자산 분위가 높을수록 매수 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주택과 토지/임야 매수 의향은 순자산 규모에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순자산 4분위 가계의 주택 매수 의향과 토지/임야 매수 의향이 가장 높았고, 순자산 5분위 가계의 부동산 투자 여력(금융자산 보유액)이 훨씬 더 커 보임에도 순자산 4분위 가계보다 주택 매수 의향과 토지/임야 매수 의향이 오히려 낮았다. 한편, 순자산 1분위 가계의 주택 매수 의향이 유독 높았는데, 이는 이들의 자가보유율이 낮아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표 IV-26〉 순자산 규모에 따른 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 매수 의향 (만원, %)



대상: 50대 직장인 가계 (n=1960)

# V.

## 결론 및 시사점



‘2020 미래에셋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운용에 관한 인식과 태도, 은퇴자산 운용계획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주요 사실을 먼저 10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조사분석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50대 직장인 가계의 은퇴자산 운용에서 보이는 5가지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은퇴자들의 성공적인 은퇴 설계 및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개선점을 제언했다.

###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현황과 계획에서 나타난 10가지 사실

- ① 가계 총자산은 부동산 72%, 연금 외 금융자산 15%, 연금 자산 8%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지역별, 자산분위별 자산규모의 주된 차이는 부동산 자산에서 결정된다.
- ③ 스스로 평가한 재무적 은퇴준비 점수는 평균 54점이며,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매겼다.

- ④ 10명 중 5명 가량은 보유한 연금자산 규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⑤ 79%가 안전추구형 자산운용 성향을 보였으며, 68%는 자신의 금융지식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 ⑥ 노후생활비 중 63%는 종신연금으로 조달하기 원한다.
- ⑦ 은퇴 후 연금자산 비중은 늘리고 투자자산 비중은 줄일 계획이다.
- ⑧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예금 보유자 중 32%는 금융투자, 29%는 부동산투자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
- ⑨ 은퇴 후 보유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55%), 주택 다운사이징(21%)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 ⑩ 전체 가구의 45%는 은퇴 후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

### 50대 직장인 가계의 은퇴자산 운용의 5가지 특징

#### ① 연금, 50대 직장인 은퇴설계의 필수요소가 되다.

연금을 빼놓고는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 가계의 은퇴설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만큼 상당수 가계가 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50대 직장인 가계 4집 중 3집(76%)은 사적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연금자산이 1억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1/4(23.8%) 수준이다. 50대 직장인 가계는 은퇴 후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들은 노후 생활비 중 62.7%를 종신연금으로 확보하고 싶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장수로 인한 자산고갈 우려가 없고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종신연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적연금을 보유한 50대 직장인 가계의 80% 이상은 향후에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록 현재까지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2.1%(금융감독원, 2019년)에 그치고 있지만, 예비 은퇴세대인 50대의 연금선호 경향이 강한 만큼, 이 비율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② 부동산 편중,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 구성으로 인해 은퇴생활비 확보가 쉽지 않다.

50대 직장인 가계의 현재 자산 구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가계는 은퇴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금자산과 금융자산이 충분치 않다. 은퇴 후 25년간 월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 있어야 한다. 50대 가계의 총자산은 평균 6억 6천만원이지만, 금융자산을 3억원 이상 가진 가계는 15.5% 정도 밖에 안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단지 보유하는 것 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얻지 못한다. 총자산의 3/4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산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유한 금융자산 대부분이 예적금, 연금과 같이 수익성이 낮은 자산으로 구성된 것도 우려의 요소다. 은퇴생활 동안 위험을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면 자산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예적금 위주로 금융자산을 운용한다면 쉽지 않다. 50대 직장인 가계는 은퇴설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가계자산 구성이 갖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산구성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 ③ 연금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50대 직장인 가계의 은퇴자산에 대한 인식과 계획을 살펴보면, 연금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금소득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의 연금자산 관리 행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50대 직장인의 39%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지 못하며, 과반(52.1%)은 사적연금 적립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본인이 적립한 연금자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연금 수령을 기대하는 등 인출계획이 잘못된 경우도 많았다.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받고자 하는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133만원 씩 20년 동안 연금을 받길 원하는데 이는 현재 보유한 퇴직연금의 3.4배에 해당하는 2억 800만원이 더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연금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50대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미래를 낙관하는 인지적 편향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자산의 미래가치를 예상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연금에 대한 관심을 자신의 가계 재무상황으로 옮겨와 연금을 활용한 은퇴 설계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 ④ 위험중립적 자산을 가지길 원한다.

50대 직장인 가계는 가급적 원금손실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가계 금융자산의 45.8%가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인 반면, 원금 손실 위험이 비교적 높은 국내외 주식/채권 투자는 19.4%에 불과했다. 투자성향 측면에서는 50대 직장인 중 79.2%가 안전 지향적이었다. 웬만하면 은행 예금이나 국채와 같이 투자원금을 잃을 확률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 제한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비율이 10.3%였고, 높은 손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비율은 10.5% 정도였다.

한편, 예적금 금리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1.75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예적금에 투자한 이유를 물었을 때 35.9%가 '마땅한 투자대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현재 예적금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대체 투자처 또한 마땅치 않다는 의미이다. 제로금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향후에는 예적금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50대 직장인 가계는 위험회피적인 투자성향 하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투자대안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⑤ 부동산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50대 직장인 가계는 노후자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과 주택연금 가입은 거주 주택을 이용해 노후소득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5가구 중 1가구(20.6%)가 은퇴 전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노후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가 거주자의 48.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반 수준인 22.6%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이사하겠다고 밝혀 그 비율이 적지 않았다.

한편,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이들의 54.8%는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입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싶어하긴 하지만 주택연금이 거주주택을 유동화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은 가계의 중요한 소유 자산이자 상속 자산으로 여겨졌으나 노후소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주택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44.8%는 은퇴 후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매수 의향이 30.4%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상가(24.3%), 토지/임야(16.4%) 순이었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에는 매매차익을 얻거나 월세 수입을 통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성공적인 은퇴설계 및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3가지 제언

① 은퇴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은퇴설계의 실행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생 가능한 은퇴 소득과 총자산 규모, 두 측면에서의 파악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내 자산에서 나올 소득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부동산의 월세, 채권 이자, 주식의 배당과 같은 정

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파악해야 한다. 소득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 나오는지 파악이 되어야 부족한 은퇴 생활비의 규모가 정확히 산출될 수 있다. 총자산 규모의 파악은 가용한 은퇴자산을 아는 것으로, 현재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정확히 알아야 할 뿐 아니라 DB형 퇴직급여(퇴직금)와 같이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자산도 놓치지 않고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 미래의 증여, 상속 이벤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자산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은퇴를 준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도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표를 이룰 가능성도 낮아진다. 은퇴설계의 실행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② 연금 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 교수는 은퇴 설계의 목표를 ‘자산’에서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은퇴까지 3억을 마련한다’와 같은 자산 목표를 세우면 이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후 은퇴생활기간 동안 자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변동이나 자산운용 전략의 실패, 장수 위험으로 인해 목표한 은퇴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자산 목표가 아니라 소득 목표를 세우고 목표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은퇴생활 기간 동안 자산운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소득목표형 은퇴설계를 한다는 것은 연금 포트폴리오(pensionized portfolio)를 구성한다는 의미다. 연금과 같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들을 찾고, 이를 조합하여 목표 소득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법인 것이다. 연금 포트폴리오에는 국민연금, 수익형 부동산, 채권, 배당주, 종신연금보험, 주택연금 등이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은퇴 소득원을 이용하여 기간별(노령 전기/후기), 목적별(기본생활비/여유생활비) 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

③ 제로 금리에 대비하는 자산운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50대 가계는 제로 금리와 함께 은퇴생활을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 고령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저금리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 더욱이 최근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위기는 각국 중앙은행의 '빅컷' (big cut, 큰 폭의 금리 인하)을 촉발하였으며 초저금리, 제로 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눈 앞에 다가왔다. 현재와 같은 안전자산 중심의 가계 자산 구성과 운용방식으로는 은퇴자산이 조기에 고갈될 위험이 높다.

금리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는 50대 예비은퇴자들은 무엇보다 자산의 금리 위험 노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예금이나 채권 이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리 인하시 노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제로 금리에 다가갈수록 안전자산은 더 이상 장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 되는 것이다.

제로 금리 시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산 비중을 높이되, 인컴 중심의 자산운용과 글로벌 분산투자로 대처해야 한다. 전문가나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은퇴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꿀정보 시리즈 LINE UP

- 연금 TALK TALK
- 보이는 팟캐스트
- 투자×투자
- 찾아가는 행은발 세미나
- 돈공부 책공부 and more!

“행은발 TV” 구독은?

▶ NAVER TV 🔍 YouTube 🔍 에서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혹은 '행은발'로 검색하세요!

● '행은발'은 '행복한 은퇴 발전소'의 준말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노후준비 콘텐츠 브랜드입니다.



2020 미래에셋 은퇴라이프트렌드 조사보고서

##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인식·태도 및 운용계획

